

201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릴레이 포럼 일정

#01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 경과 및 평가

일시 : 2013년 1월 19일(토) 오후2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B2 워크숍룸

#02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들 - 현장의 장애 요소 및 대안

일시 : 2013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0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일시 : 2013년 3월 20일(수) 오후2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카이브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며

한국 사회에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고, 같은 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된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제도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두 개의 바퀴를 통해 달려왔고, 이 과정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들이 지정되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화예술정책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예산과 조직 그리고 사업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활성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고민과 어려움도 깊어졌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중앙 정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진행되었지만, 그 성과만큼이나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이 현장으로부터 제기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철학적인 방향성의 문제에서부터 현장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질감에 이르기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서부터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제도의 혁신에서부터 강사들의 노동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금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지나 온 시간만큼 다양하고 중요한 숙제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고민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은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싸고 축적되어 왔던 궁금증, 문제점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을 함께 나누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현장의 관점에서 이를 고민하고 지원해왔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둘러싼 생태계 속에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오래 동안 고민하고 연구해 온 문화연대와 경기□서울□인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현장 예술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은 세 번에 걸쳐 세 곳의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의 연속포럼 주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평가와 성찰”, “현장의 고민”, “대안과 상상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보고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의 흔적과 성과를 함께 나누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세 차례 연속포럼 동안 진행되었던 기조 강연, 발제, 토론 등이 발표문과 녹취록의 형식으로 빼곡하게 들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은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상상합니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현장과 마주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의 고민과 어려움도 많아졌습니다. 단순히 문제점과 어려움을 토로하는 시간을 지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들을 비롯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예술교육 주체들이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에 참여했던 주체들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좀 더 일상적이고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의 감성과 관계성을 매개로 다양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의 주체성을 만들어 가는 경로입니다. 지역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제도의 주체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연속포럼의 결과물들이 아주 조금이나마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새로운 미래를 상상합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릴레이 포럼 목차

#01 일정

#02 인사말

#03 릴레이 포럼 1차
P10

사 회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기조강연 : 박찬국(미술가, 논아트발아트 디렉터)
발 제 : 김종길(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토 론 : 이상훈(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박상혁(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매니저)

#04 릴레이포럼 2차
P56

사 회 : 박형주(하자센터)
기조강연 : 김인규(미술가, 미술교사)
발 제 : 김영경(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토 론 : 정민룡(광주북구문화의집 관장)
민경은(여러가지연구소 대표)

#05 릴레이 포럼 3차
P112

사 회 : 이원재(문화연대 사무처장)
기조강연 : 강원재(00은대학연구소 1소장)
발 제 : 이규석(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드라마고(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토 론 : 고영직(문학평론가)
이상훈(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말하다 - 경과 및 평가

일시 : 2013년 1월 19일(토) 오후2시

장소 : 서울시청 시민청 B2 워크숍룸

기조강연

박찬국 (미술가, 본아트발아트 디렉터)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문화예술교육의 내부 혁명을 위하여

발제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이상훈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박상혁(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매니저)

지정토론1

지정토론2

개선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문명의 지속 능력이 문명 자체에 의해 위협받는 이 의도하지 않는 결과를 가리켜 '인류의 곤경'이라 부른다. (진화의 종말, 폴 에얼릭 외)

한국 사회의 중앙 통제와 제도화 욕구는 폭력적으로 정답을 강조한다.

답을 정해놓지 않으면 군림이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원점에서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해법을 찾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당장 써먹을 아이디어와 답을 구하는데 급급하다. 로컬리티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떠들지만 로컬리티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하지 않는다. 창의적인 것을 부르짖지만 창의적인 환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배려가 없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담론들마저 양날의 칼이 된다. 대부분 익기도 전에 순식간에 제도화 되고 '널리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세세한 형식의 강요로 이어진다. 이윽고 새로운 것의 강요는 요란한 줄 세우기 끝에 새로운 통제와 착취의 수단이 된다. 정답은 지켜야 할 정답이 아니라 소비하기 위한 정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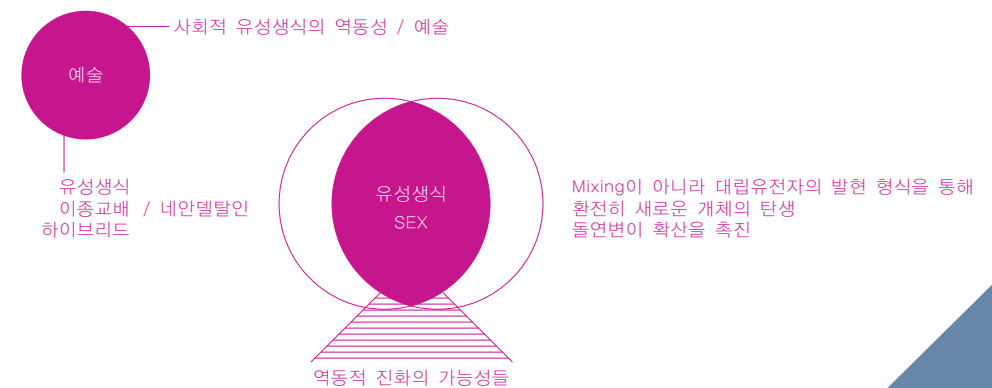
Art & Sex

사회적 유성생식의 역동성/ 예술

진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섹스, 돌연변이, 개성, 이주라고 한다.

섹스는 두 개의 각기 다른 개체가 또 다른 개체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이다. 섹스에 의한 증식을 유성생식이라고 한다. 섹스 없이 증식하는 방법은 무성생식이라고 한다. 무성생식은 자기복제에 가깝

지만 유성생식은 각각의 형질을 유전하면서도 전혀 다른 개체를 탄생시킨다. 유성생식은 생명체의 진화 역사에 획기적인 발전의 상징이다. 유성생식에 의해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킬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의 확률을 높인다. 돌연변이는 환경조건이나 생물체의 필요와 아무 관계없이 일어난다. 돌연변이는 무작위로 발생한다. 돌연변이가 모두 진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에너지의 낭비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진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동시대 예술은 역동성이 특징이다.

동류들 사이에서 본질적인 미의식을 추구하는 것보다 이질적인 환경과 모호한 공간으로 질주한다. 본질을 내세우기보다는 사건 속에서 존재를 증명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독자성이 아니라 다른 것들의 숨겨진 속성들을 드러나게 하고 예측하지 못한 잠재력을 촉발한다. 사회적 이슈 안으로 뛰어들고 다른 영역과 협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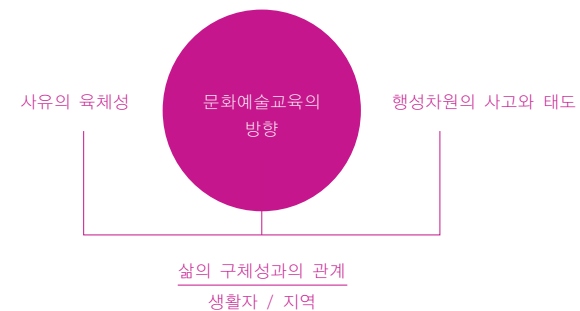
명확하게 스스로를 물질화하여 존재감을 드러내던 '작품'의 세계에서 '작업'의 세계로 진화하여 다른 존재의 변화를 통해 드러난다. 그 자신 존재의 유연함으로 엉뚱한 상상력을 촉발한다. 기존 데이터의 배열과 재배열 사이에서 새로운 개체가 탄생하는 유성생식의 법칙과 유사하고, 마치 돌연변이의 과정처럼 작동하기도 한다.

'작품'을 강조하던 시기보다 매우 역동적인 이러한 상황을 진정한 예술의 '진화'로 인식하고 활동을 확장시켜야하며 예술제도 안에서도 더 활발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하는 예술의 속성을 교육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도 쇄신과 성장을 거듭해 왔다. 예술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교육제도 전체를 성찰적으로 조감하는 틀을 제공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문화예술교육을 제도화 하고 빠른 시간 안에 확산시키기 위한 무리수의 연속이었다. 제도가 돌아가는 것을 보면, 어떤 성공모델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며 그 때 그때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용단폭격 하듯이 복제한다. 이견을 싫어한다. 집단적용과 평가에 용이한 것만 채택하고 나머지는 고사시킨다. 중앙에서 모두 관리하고 지역센터, 단체, 개인은 불신을 전제로 한 시스템 안에 묶어 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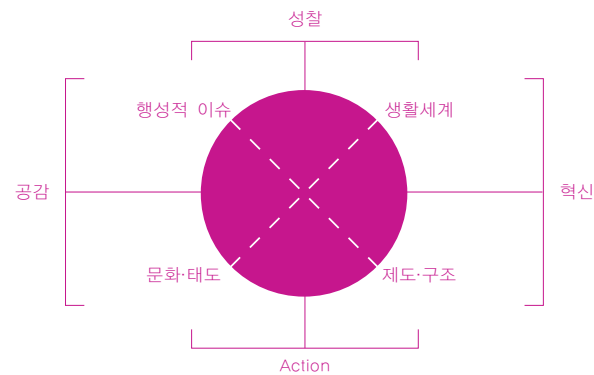
제도, 사업, 사람이 다 중요한데 운용하는 방식이 모두 닮아 있다.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제도는 무성생식 방법으로 증식했다. 무성생식은 복제에 용이하지만 진화는 더디다. 역동성이 떨어지고 참여자들을 소진시킨다.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된 큰 이유는 지식과 교육, 사회문화적 환경이 지나치게 기능적으로 분화되고 당장 필요한 것에만 맞춰 공급하려는 사회의 틀에 박힌 경직성 때문이었다. 역동적인 가능성의 존재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복잡성과 다중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요구에도 응할 수 없는 시스템에 대한 성찰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솔루션으로 만든 제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솔루션을 방해하는 현상이 보이고 있다. 지금 그 심각성은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준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할 정도의 상황에 있다고 여겨진다.



'행성적 감수성' 을 강조하는 제도

지금 눈 앞의 문제는 바로 눈 앞의 문제다.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 끊임없이 찾고 있는 아이디어와 새로운 지식들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의 바로 눈앞에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인류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모든 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보고 재구성 해 보려는 과정을 그려보자. 2011년의 논아트 발아트 nonArt butArt 프로젝트에서 나는 벼농사를 지으면서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인류의 경험과 지식의 총화이고 직접 대상인 벼를 비롯한 못 생명체들의 스스로 혹은 상호 디자인 과정이다. 흔히 우리는 우리가 벼를 선택하고 벼를 개량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식물과 인간 상호작용인 선택과 적응의 결과이다. 벼뿐만이 아니라 잡초들, 벌레들, 토양 미생물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 활동과 연관된 지구 대기, 기후와 연관되어 있다. 지금 여기는 결과가 아니라 늘 과정이다. 어떤 것을 중심에 놓고 볼 것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의 관심이 벼가 아니라 잡초인 물달개비로 이동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진다. 아마도 '익으면 고개가 숙어드는 벼'라는 말은 금방 사라질지도 모른다. 굵고 찰진 쌀 생산이 관심 밖이 되면 벼가 무거운 벼 이삭들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공존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을 단순히 관찰과 기록이라는 형태가 아니라 진화과정의 역동성을 드러내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지식과 예술과 생활세계로 연결되게 하는 것으로 문화예술교육은 큰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우리 프로젝트에서는 농사과정에 다양한 연령층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게 하고 오리를 키우고 프랑스 건축가 르 꼬르뷔제의 건축유산을 활용하였다. 모두의 경험은 존중되지만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 구성되고 예측이 쉽지 않은 변수들과 모호함들을 노출시켰다. 그래서 결국 미흡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그리고 원점에서 출발해 보는 것이다.



행성 차원에서 사고하기. 원점에서 시작하기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스스로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해석과 동시대 이슈를 체감하는 감수성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인류의 문제는 인간 사회만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행성 전체를 착취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정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빠진 것이다.

무한 성장을 향한 무한 욕구의 투쟁이 열린 상황에서 모든 자원과 지식과 에너지가 욕망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간다. 성찰과 브레이크가 필요하지만 그냥 생각뿐이고 멈출 수 있는 힘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좋은 생각과 올바른 태도가 거대 국가들의 횡포를 그치게 하기 어렵겠지만 이제는 그런 노력과 감수성 자체가 인간의 '지식'과 '생활' 비전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행성의 존재들을 배려하고 일부만을 위한 성장을 멈출 것인가? 지금까지 생산한 인류의 모든 자산과 기술, 지혜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 재구성 과정이 그 사회의 역량과 성장의 척도가 되어야 하며 앞으로 세계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분자세계의 비밀을 이제 막 해독하고 있는 중이다. 덕분에 유전자에 대한 이해가 크게 빨라졌다. 세균을 비롯하여 지구라는 행성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수많은 생물체와 자연현상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해하는 것이 사유와 붙어있고 생체모방이 창의성과 한 몸인 경우, 두뇌와 다른 신체기관의 기능이 상보적이어서 행동과 사유와 감정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발전한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어 발전한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로컬의 관계를 결국 성장중심으로 사유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고려하는 '행성적 감수성'을 강조하는 제도를 디자인하는 것이 관건이다.

문화예술교육의 내부 혁명을 위하여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문화예술'은 교육의 부재를 확인하는 '반짝 이벤트'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다. 교육철학이 피폐한 학교나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깜짝 쇼를 펼치거나 흥미유발 서커스를 위해 초대되니까, 그나마 이벤트의 감동수치가 높은 프로그램은 주 단위 혹은 월단위로 기획되기도 하지만, '시범성' 프로그램은 근력강화 주사로 핏대를 세운 차력사들처럼 한 순간에 '문화예술교육'의 황홀경을 펼쳐내야 한다. '특종, 놀라운 세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법한 사건을 일상처럼 기획해야 하는 곳이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다.

학교에서 교양학습이나 특별학습도 아닌 지친 뇌 근육 활성화를 위한 찰나의 이벤트가 될 때 문화예술은 수치심도 없는 뻔뻔한 돈벌이가 된다. 사회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불려가 웃 갈아입고 화장하고 노래하고 입방정을 놀릴 때 문화예술은 앵벌이가 된다. 문화예술은 새 천년의 시대령을 넘어 와 그렇게 '분식교육'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에서 추방당한 문화예술교육이 정부주도의 정책 속에서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부의 시녀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정부에 더부살이하며 샴을 받아 연명하는 그런 문화예술교육은 우리가 키운 민주주의와 놀라운 정도로 닮았다. 독선과 아집에 항거하며 멧집을 키웠고, 주먹다짐과 격렬한 몸싸움도 불사하는 투사의 정신을 가졌으나 철학과 영혼은 광화문 근처나 여의도의 후미진 광장 귀퉁이 술집에 팔아먹었으니까, 둘은 '문화민주주의'로 이론화 되는 듯 했으나 철학이나 영혼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고, 그저 어딘가에 꽃아 둔 민주주의의 낡은 깃발 하나면 족했다. 결국 문화예술교육은 낡은 패러다임의 수렁에 빠졌다. 하루속히 기대효과를 내야 하니 '속도주의'를 따르고, "너도 하면 나도 한다." 식 '평등주

의'로 프로그램 질을 떨어뜨리며, "내꺼" "니꺼" 따지지 않는 '형식주의'는 프로그램 도둑질을 우습게 알고, 사업성과를 최대한으로 부풀리기 위해 '최대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그 자신을 제외한 사회전반을 냉소하는 '냉소주의'에 물들어 있으니,

문화예술교육은 내부 혁명이 필요하다. 그동안 대안교육, 미래교육의 본질이 썩어갈 때, 양적으로 팽창한 별별 문화예술교육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이면으로 친(親)상업주의에 물든 진보지식인 사회의 얼굴을 반영한다. 그 모든 진보적 교육의 대안과 정책을 생산해낸 장본인들이 그들이니까, 그러나 그들은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대안교육도 잡아먹고 미래교육도 잡아먹는 괴물이 된 듯하다. 때때로 그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마치 교육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사기성' 사업을 펼치기도 한다. 철학은커녕 교육방법론 하나 변변치 못한 프로그램으로 말이다. 이런 고질적 병폐를 변혁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는 참으로 암담할 것이다.

내부 혁명을 위해 먼저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 첫째는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새로운 방법론의 모색이다. 둘째는 문화예술교육 철학입론을 위한 지적 사유의 전개이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문화예술 유산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문화예술을 창출케 한 경전과 성인들의 기록은 헤아릴 수 없다. 문화예술교육이 대안이 아니라 인간학의 본질일 수 있음은 바로 그런 위대한 유산에 기인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론이 필요할까?

두 가지 방법론의 예시

문화예술교육 방법론에 적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을 생각해 본다. 두 이론은 예술작품 분석에 사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론이다. 문화예술교육이 궁극적으로 전인적 인간학을 목표로 할 때, 이 두 이론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흥미롭게도 두 이론은 대상이 된 예술작품만의 해석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다양한 문화 예술적 문맥, 즉 총체적인 이해를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술작품과 연계된 역사, 철학, 문학(사), 예술(사) 등 인문학의 숲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론이 앞서 언급했던, 말 그대로 '컨텍스트(context:문맥)' 이론이다. 이 이론의 방법론은 주로 문화적 배경에 의존한다. 독일 학자 바우어(H. Bauer)가 이 방법론을 성장시켰는데, 기존의 양식 이론과 도상해석학에 의한 의미 분석이 오직 예술작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도입했다. 대체로 예술작품은 그것들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의미를 추출해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양식과 도상해석을 위한 비교대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근접지역이나 동일 문명권에서 찾기 힘든 경우 바우어가 취한 방법은 문화적 배경을 역사인문학적 측면으로 넓혀 더 다양하게 제시해 보는 것이었다. 그럼, 뜻밖에도 아주 멀리 떨어진 문명권과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 문명과의 교섭관계를 확인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던 것이다.

두 번째는 독일의 미학자 니콜라이 하르트만(Nicolai Hartmann)이 제시했던 '층구조'(層構造, Schichtungstruktur)이론이다. 그 이론의 해석구조는 이렇다. 여기 미술작품이 하나가 있다 하자. 작품은

전경(Vordergrund)과 후경(Hintergrund)이 있다. 전자가 감성의 단순한 요소, 즉 형태와 색채에 관련하는 반면, 후자는 보다 깊고, 보다 심오한 요소에 집중한다. 후자는 다시 네 개의 층으로 나뉘는데, 첫째, 3차원적인 것, 둘째, 생명력, 셋째, 심리적인 것, 넷째, 정신적인 것 등이다. 이에 대한 하르트만 본인의 설명.

“후경은 깊이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가 초상화의 전경 배후에서 나타나는 것을 더 가까이 관찰한다고 하면, 우선 첫 번째 층에서는 그려진 인물의 순수히 외적인 측면, 즉 물적인 것이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서 단순한 전경의 이차원성에 대립된 삼차원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비로소 생동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 생동감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 다시금 심리적인 존재,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마치 생명체에서 얼굴표정, 전체적 형상, 거동, 태도 등에 의해 만나게 되는 내면적인 것이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얼굴표정 속에 감춰진, 예컨대 램브란트가 그의 초상화에서 깊이 있게 표현해 낼 줄 알았던 인간의 운명 같은 것이 드러난다. 그림에서 관념적 측면으로 나오는 이 운명성 역시 가장 최후의 층은 아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들 모두에게 적합한 보편적 인간성이 두드러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후경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인간의 정신과 만나게 된다. 그것은 작품에 이입된 작가의 창의적인 정신일 것이다. 예술작품에서 도출된 그런 미의 목적과 정신의 재인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정신과 작품 사이의 상호작용을 겪게 되며, 마침내는 작품의 해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권영필, 『미적 상상력과 미술사학』, 253~256쪽 참조)



두 이론이 문화예술교육 방법론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이들 이론에 다양한 문화예술, 즉 탈춤이나 판소리, 우리 옷이나 가구, 심지어 한옥과 같은 건축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이론이 예술작품의 의미만이 아니라 작가의 창작의도, 문화적 상관성, 그리고 인류의 정신까지도 파악하려는 매우 심도 깊은 방법론이란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예술교육이 문화교육이나 예술교육처럼 교양 또는 기능교육과 상관없이 인문정신의 성숙을 위한 매개교육이란 점과도 밀접하게 상관한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론에도 불구하고 방법론을 적용할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사실, 한국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기형적인 확장과 비현실성은 철학의 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부재가 우리 시대의 문화적 경향성, 즉 '아비투스(습속)'의 전형인지는 모르겠으나(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것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작동원리를 위한 '마이크로코스미(microcosm:소우주)'의 교육철학은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철학을 위해 몇 가지 전제를 생각해 보았다.

철학을 위한 다섯 가지 전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위대한 스승과 만날 수 있을 터. 나는 여기서 다섯 개의 키워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①신화 : 참나(眞我)의 신령한 뿌



리 ②영성 : 참나의 푸른 수액 ③역사 : 참나의 오래된 웅이 ④지혜 : 참나의 흰 그늘 ⑤공감 : 참나의 이웃 동지 등인데,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며, 마치 한 그루의 큰 나무처럼 하나면서 전체다.

① 신화 : 참나(眞我)의 신령한 뿌리

신화는 우리가 상실한 원문명의 가장 웅숭깊은 철학이요, 역사요, 사상이다. 신화는 “세계의 발생, 신들의 계통, 세계의 구조, 인간의 발생, 세계의 종말” 등을 주제로 하며, 사상을 개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시적(詩的)인 이야기에 의해서 형상화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신성한 서술(敘述)’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전승 설화, 즉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 인간, 동식물, 특정의 인간행위, 자연현상, 제도 등이 어떻게 출현했는가를 들려준다.

신화는 ‘참나’의 신령한 뿌리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을 통한 ‘참나’의 재인식과 그런 성찰에 있다. 그리고 그 성찰적 사유의 심오한 후경에 신화가 존재한다. 신화의 뿌리는 곧 참나의 뿌리이니 반드시 우리는 신화와 신화소의 맥점을 찾아야 하고 이해해야만 한다.

제주도에는 1만 8천여의 신이 있고, 그 중 ‘세경본풀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의 주인공은 자청비로 그녀는 대지의 신이고 곡식의 신이다. 또한 생산, 양육의 여신이기도 하다. 일생을 제주신화

연구에 바쳤던 진성기 선생은 “신화는 인습에서 성장한 여러 신들의 근본 내력인 동시에 그것은 그대로 제주선주민의 시초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설명한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한반도에는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만큼 많은 신화가 잠자고 있다.

단군은 그동안 신화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요하문명의 발굴로 신화에서 역사로 인정받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황하문명보다 1천년이나 앞 선 문명으로 연구되고 있다. 동북 3성인 라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은 옛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터전이었다. 바로 이곳이 요하문명의 발굴지인데, 이제 우리는 신화적 상상력에서 다시 역사적 상상력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응결하는 다양한 인문 지리학적 상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② 영성 : 참나의 푸른 수액

문화예술교육의 형식주의가 낳은 가장 큰 폐단은 영성은커녕 인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던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사람다움’의 실현을 위해 기획된다. 그 ‘다움’은 잘 성장한 나무들의 품격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영성의 ‘씨알트기’를 통한 인성의 완성에 그 핵심과제를 두어야 한다.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준비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라면, 문화예술교육은 학교와 사회가 결코 성취하지 못한 인문학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가 기획하는 자발적 윤리에 가깝다.

영성은 내 안에 잠자는 ‘참나’의 본질이다. 그것은 어두운 페르소나(Persona:가면을 쓴 인격)일 때도 있으나 아브락사스(abraxas)의 실체이기도 하다. 아브락사스는 참과 거짓, 선과 악 그리고 빛과 어둠 등 모든 양극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신성이다. 영성은 내 안에 잠들어 있는 신성이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영성의 ‘깨움’은 붉은 피를 푸른 피로 바꾸는 작업이다. 마치 애벌레가 고치를 벗고 나비가 되듯 육체를 영적 신체로 ‘탈아(脫我)’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영성이 충만한 인간이 가장 사람답다.

③ 역사 : 참나의 오래된 웅이

나의 역사는 고사하고 아버지의 역사, 어머니의 역사,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사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증조부 증조모 고조부 고조모에 이르면 우리는 거의 공백상태다. 내 역사의 가장 큰 웅이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그런 잃어버린 ‘나’의 역사를 체현하고 기억하기 위해 기획될 필요가 있다. 나는 다시 너의 역사로, 우리의 역사로 넓어진다.

우리는 여러 문명의 역사, 국가의 역사는 기억하지만 지역의 역사,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나’라는 주체에 대한 인식 없이 대타자에 대한 정체성만을 부르짖는 형국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는 나 스스로를 위한 ‘인정 투쟁’에 나서야 한다. 즉 나는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다음 나를 둘러싼 세계의 역사를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나와 가족, 나와

지역사회, 나와 조국, 나와 문명, 나와 세계, 나와 우주로의 끝없는 확장선은 끊임없이 '나'를 묻는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언젠가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탐사했던 권영필은 실크로드와 한반도의 역사적 연관성을 떠올리며 이런 말을 남긴바 있다. “그 옛날 사마르칸트까지 갔던 고구려인의 투지와 웅지를 상기하면, 우리는 못 이룰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것이 틀림없다. 한마디로 역사를 통해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존재의 자기 확인이 가능해진다.” '나'의 확장선이 가 닿을 수 있는 세계는 무궁하다. 그러나 역사적 인식 없는 확장선은 종착지 없이 굴러가는 열차와 하등 다를 바 없다.

④ 지혜 : 참나의 흰 그늘

지혜는 울음과 웃음을 구분하지 않는다. 슬픔과 기쁨도 구분하지 않는다. 지혜는 지식의 총만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않는 명석함에서 온다. 우리는 웃다가도 울고 울다가도 웃는다. 무엇이 슬프고 기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 슬픔이 한이 없다가도 기쁨이 오면 금방 웃는다. 완전한 빛도 완전한 어둠도 없다.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강하다. 우리는 그 어둠에서 흰 그늘을 엿본다. 지혜는 그런 것이다. 참나의 내부에는 그런 감정의 빛 그늘이 가득하다. 그것들이 온전할 때 몸은 지혜로워진다. 그것들이 몸 안에서 '신명(神明)'을 이룰 때 지혜가 총망해진다. 시인 김지하는 신명을 '활

동하는 무'라 했고, '율려(律呂)'라 했다. '율(律)'이란 운율 곧 질서, 코스모스를 말하며 생명의 펼쳐지는 힘을 말한다. '려(呂)'란 혼돈, 카오스를 의미한다. 음악적으로 본다면 2박이 '율'이며, 3박이 '려'이다. '흰 그늘'이라는 개념을 여기에 맞추어 보면, '흰' 곧 밝음은 질서, '율'에 해당되고, '그늘' 곧 어둠은 혼돈, '려'에 해당된다.(이병창, 동아대 교수)

만약 우리 몸의 내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때 지혜는 독선이 된다. 그래서 지혜는 시인의 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시를 법문으로 하여야만 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시작과 끝에 늘 시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⑤ 공감 : 참나의 이웃 동지

신화, 영성, 역사, 지혜가 있어도 공감하지 못하면 헛것이다. 다섯 개 철학적 키워드의 융합이 아니라 신화의 공감, 영성의 공감, 역사의 공감, 지혜의 공감처럼 각 개별적 키워드에 공감이 결합되어야 하며, 그것들이 크게 모여 공감의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마치 큰 나무가 바람, 구름, 새, 곤충, 짐승들과 같은 온갖 자연의 생명을 그 안에 품듯이 문화예술교육도 그와 같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제레미 리프킨은 최근 펴낸 『공감의 시대』에서 인간은 '호모 앰파티쿠스'라고 말했다. 인간은 공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여기서 공감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의 정서적 상태로 들어가 이를 자신의 고통인 것처럼 느끼는 것이며, 수동적인 입장과 달리 적극적인 참여로 나타난다. 이제 새로운 시대의 사회구조는 2백년 가까이 변함없는 키워드였던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며, 그것은 사람들 간의 '공감'에서 출발해야만 할 것이다. 공감은 문화예술교육 철학의 큰 울타리이다.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는 '상상의 공동체' 라고 생각한다.

베네딕트 앤더슨에 의하면, '상상의 공동체'는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구성되고 의미가 부여된 역사적 공동체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적 실재로서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경험되는 시공간 안에 존재한다는 인류학적 명제를 깔고 있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상상의 공동체'를 근대적 국가주의로부터 우주적 지구주의로 확장하는 꿈을 꿀 수 있다. 이를 위해선 필연적으로 우리 밖의 '상상의 공동체'와 만나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할까?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 경과 및 평가

주최 : 이원재단(연예 기획사)
주최 : 박찬국(미술가, 본아트라이브 디렉터)
주최 : 김종길(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주최 : 이상훈(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교육팀장)
주최 : 박상희(서울문화재단교육지원센터 매니저)

희망서울
사람을 연결하고
삶을 나누는
서울교육 이야기

서울
예술교육
페어 201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①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주최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동주최 : 경기도미술관, 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박찬국 (기조강연) ▶ 안녕하세요. 기조강연을 맡은 박찬국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의 몸 한 방울 안에는 대략 1억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입맛을 한 번 다시보시죠.(웃음) 이 1억 마리의 세균들은 기본적으로 지능이 없는 생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끼리 의사소통을 하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주로 손을 자주 씻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손을 자주 씻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세균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숙주인 사람을 빨리 죽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손을 너무 자주 씻으면 세균들이 번식할 수 있는 환경들이 나빠지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산다는 지점에서 단세포의 세계만 봐도 많은 부분이 아직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 것이죠. 넓게 봐서 생명체 전체, 생태계 전체로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어마어마한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진화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는 진화에 핵심적이고, 진화의 속도를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섹스라고 합니다. 특히 유성생식을 말하는데 전혀 다른 개체가 만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개체를 생산하는 거예요. 반대로 무성생식은 자기가 자기 그냥 복제하는 거예요. 똑같은 자기, 하나의 개체 안에서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내는 이런 방식이죠. 유성생식 과정에서의 특징은 돌연변이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는 거죠.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에너지 낭비죠. 예를 들면 복제를 하게 되면, 거의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재생산 하는 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성생식은 돌연변이가 많이 생겨요. 돌연변이가 많이 생기면 돌연변이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형태라든가, 좋은 성질만 물려받았을 것은 아니에요. 대다수가 실패합니다. 그 중 한 두 개가 전혀 다른 내성을 갖거나 전혀 다른 특성을 발휘하면서 거기서 생존해서, 지금까지 있던 패러다임을 뒤집어엎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나 생명체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존을 해왔던건데요. 저는 현대 예술이 이런 돌연변이와 관련해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생활세계에서 실용적인 관점에서 보면 활용하기 어려운 여러 조건들, 그 다음에 생각들, 이런 것들이 돌출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는 게 아니죠. 돌연변이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생태계 내에서 돌연변이가 그런 방식으로 발전하고, 당장은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진화에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 지점에서 볼 때, 예술이나 예술교육, 문화생태계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주는 메타포가 있다고 본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용인되기 어려운 세계에 들어와서 일종의 유성생식과 같은 방식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농사를 지어본다거나, 직접 현장에 들어와서 일을 해보며 일상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새로운 것과 만나고 일상적인 조건과 만났을 때, 일상을 도와주는 일종의 데코레이션 내지는 서비스를 부드럽게 하는 역할만 가능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럼 예술이 거기에 존재할 가치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증명해 가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관심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11년에 남양주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논농사를 지어본적도 없는 작가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우습게보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철없는 농사꾼이라고 해서 '철농꾼'이라고 해서 사람들을 모집했어요.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벼가 커가는 과정이나 물이 논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현장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 현장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법씨를 심 으면서부터 나중에 그 벼로 밥을 해먹는 과정까지 다같이 모여서 노는 거죠. 마지막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 밥맛을 아주 음미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생산해내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산해낸 쌀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술가들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생산량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문제는 지금부터는 예술가들이 한국사회 내부 내지는 동네, 이런 것에 집중하고 그 안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균의 문제라든가, 우리가 모든 생명체에 관한 사유

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술도 생존을 미술관이 아닌 자기가 어디 가서 먹고 사느냐, 생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현실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예술이 현실 안에 진입 가능한가? 현실 안에서 새로운 생존, 예술의 의미를 생성시키면서 존재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 했던 것처럼,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돌연변이인 것입니다.

서울에 보면 농성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연히 재능교육 농성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보니까 압력밥솥으로 보일러를 만들어서 생존을 위한 장치들을 만든 것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적정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농성장을 보면 노란색 테이프, 각목, 보온 덮개, 비닐을 이용해서 장시간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비용도 적게 들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른 문제로 저나 건축가나 디자이너나 이런 훈련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런 걸 본다면, 똑같은 조건 하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 노란 테이프만 가지고 집을 하나 짓거나 담배만 피울 수 있는 공간 하나를 디자인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술도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술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예술교육은 무성생식의 방식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좋은 게 있으니까 복제해서 뿌리자, 그러면 다 좋을거야,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 중에 하나는 그게 지역으로 들어가서 지역 나름대로의 특성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그냥 지역에서 좀 더 현실화해내는 이런 것만 계속 만들

어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패러다임 자체를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이에요.

이원재 (사회) ▶ 기초강연을 해주신 박찬국 선생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성생식에서 시작해서 적정기술에서 재능농성장까지…….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첫 번째 행사입니다. 이 포럼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많은 성과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이라는 것이 제도 정착화 된지 8년, 10년 정도의 사이클로 가고 있는데, 많은 성과들이 있었고, 또 많이 아쉽고, 많은 문제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장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문화예술교육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세 번의 연속 포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서울·경기 권에 계시는 지역센터 분들과 문화연대가 함께 준비하게 됐고요. 오늘은 주로 좀 평가, 그동안 우리가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었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로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제는 경기도미술관 김종길 교육팀장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김종길 (발제) ▶ 반갑습니다. 경기도 미술관 교육팀장 김종길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의 내부혁명을 위하여' 라는 글은 배포해드린 원고를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에 우리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웹진에서 토론되었던 내용들을 발췌하기도 했고, 중간에 제가 썼던 원고들을 녹이기도 하고, 또 텍스트만 가지고는 설명 불가능한 지점은 여기저기서 사진들을 중간에 삽입시켰습니다.

여기서 내부혁명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건 쉽게 얘기 하자면 상실된 후경의 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전경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뒷배경, 내면, 심연에 대한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후경들은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후경은 사실은 굉장히 토속적인 것이기도 하고, 샤머니즘 같은 것이기도 하고, 꿈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고,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흘러버리거나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예상하거나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야할 중요한 철학적 기반으로서의 후경을 제안해보자해서 원고를 작성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고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윤덕 작가의 꽃할머니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그림책인데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15살 때, 언니와 함께 나물 캐러 갔다가 강제로 위안부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 했을 때,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어떻게든 들어왔는데, 자기가 누군지 자기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떠돌다가 절간에 가게 된 것 같아요. 절에서 숙식을 제공해주는 상태로 보냈는데, 자기 언니를 찾아야 한다는 동생의 기막힌 운명 같은 절규가 결국 이 언니

를 만나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기억이 돌아올 시점에 동생이 죽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술가들과 함께 자기의 상실된 후경을 복권하는 그런 예술적인 작업을 하게 되고, 그게 꽃으로 뭔가를 그리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꽃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고, 대사관 앞에서 오랫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의 인권을 위한 투쟁을 계속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생각하면 학교문화예술교육이나 사회문화예술교육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바로 이런 것과 상실된 우리의 자아와 상실된 후경을 복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철학적 기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참여했던 한 박람회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진지하고 아주 성찰적인 내용들이었는데, 제목이 시사 하는 바가 있어서 제목 부제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존재적 규정 없이 일자리 프레임과 교육 테크닉만 중시되는 예술강사 사업에 대한' 이라는 구절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교육 내부혁명을 위하여 첫 페이지에 쓴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존재감이 없이 일자리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거죠. 교육은 없고 테크닉만 남아 있다는 것이고, 예술강사 일도 사업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한마디죠. 이 말 한마디에 현재 예술강사의 존재가 전반적으로 다 녹아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령 한 작가는 수업하면서 예술을 벗어나서 컨템퍼러리 아트에 대한 새로운 감각들, 트렌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현장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술가들은 규정된 콘텐츠와 규정된 차수에서 움직이니까 예술가가 뭔가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새

로운 예술적 작업을 시도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 하셨던 것처럼 예술가의 사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돌연변이 같은 사유죠. 불연속적이고, 뭔가 규정되지 않고, 비논리적인 거고, 이런 것이 예술가의 사유이지 않습니까? 예술가의 사유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제도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굉장히 끔찍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술강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연속과 비합리적이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지 못하도록 묶고 있다는 거죠. 컨템퍼러리 아트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런 지점이거든요. 포스트모던 이후에 그런 논의조차도 21세기에 와서는, 컨템퍼러리 아트는 말이 하나의 사조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술이 뭔가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씨알을 트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 존재적 규정은 없고 기능적 규정만 존재합니다. 예술강사가 누구냐면 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인거죠. 예술가도 아닌 기능으로서만 예술강사의 태도나 철학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제로 담당하는 예술강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냥 짜여진 일에 다람쥐 쳇바퀴처럼 주어진 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해서 진행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제 글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교육철학이 부족한 학교나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깜짝쇼를 펼치거나 흥미 유발을 위해 초대된다. 그나마 이벤트의 감동 수치가 높은 프로그램은 주 단위 혹은 월단위로 교육을 하지만, 시범성 프로그램은 근력강화 주사로 핏대를 세운 차력사들의 한 순간에 문화예술교육의 황홀경을 펼쳐내야 한다.' 짧은 시수 안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완전히 기가 막힌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안에서 황홀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 예술강사 자격 없어' 이런 이야기



가 단박에 나오는 거죠. '특종, 놀라운 세상이' 나 '세상에 이런 일이' 에 나올법한 사건을 일상처럼 기획해야 하는 곳에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기센터는 10년에 생겼죠. 지난해 경기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경기문화재단에 생긴다고 해서 제가 정말 반가워하고 축하하고 그랬어요. 가끔 일하는 실무자 후배님들 보면 기분 좋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가 다 빵꾸 나있는데 끌고는 가야겠고, 위에서도 아래서도 성과를 원하고, 존재감 전혀 없죠.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정규직도 아니고, 그냥 사업단위 계약직입니다. 프로젝트 계약직이라고 하면 좀 있어 보이지만,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이 프로젝트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 노조가 처음 생겼어요. 지금 지부장을 맡아서 단체 협약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안에 끌어들이야 하는데 직원의 정의에서 답이 안 나와요.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아니어서 결국 포기했어요. 왜냐면 사업비 안에서 인건비 항목이 들어가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책정 안되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예술강사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에게 어떤 문화예술교육이 필요한가라는 고려 없이 예술강사의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 분류를 해놓고 선발배치하는 식으로만 진행되었다는 점이에요. 정부가 일자리 사업으로 오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만 성과 지표로 들어가는 거죠. 이젠 이런 얘기들을 꺼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프레임 때문에 다른 상상력, 다른 문제의식들을 예술강사들은 가질 수 없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양학습이나 특별학습도 아닌 지친 뇌 근육활성화를 위한 찰나의 이벤트가 될 때 문화예술은 수치심도 없는 뻔뻔한 돈벌이가 된다.' 이게 아주 냉혹하게 평가해본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에요. 강사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면 이런 거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자존감이 없어지고 자괴감만 쌓이는 거죠. 내가 지금 돈벌이 때문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나 이런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 자리조차도 잃어버리면 밥벌이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전문성도 없어지는 것 같고……. '사회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불려가 옷 갈아입고 확장하고 노래하고 입방정을 놀릴 때 문화예술은 앵벌이가 된다.' 고 합니다. 제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술가들이 도대체 왜 저렇게 광대짓을 해야 하나요? 근데 그런 사실들로 도배되어 있고……. 사실상 분식교육이죠. 분식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다양한 책들 보면, 모두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런 사진들로만 도배되어 있죠. 도대체 본질은 보이지 않고 뭔가 아름답다는 분식 문화예술교육으로 이 사회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화예술교육의 실제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학교에서 추방당한 문화예술교육이 정부주도의 정책 속에서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부의 시너로 전략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정부 관계자가 있다면 반성 좀 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단일한 성과를 위해서 모두가 푹푹 뭉쳐 있는데, 과연 학교문화예술교육·사회문화예술교육 이 안에서만 문화예술교육을 논의해야 할까요? 초기에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말을 처음에 쓸 때도 문화·교육인지, 문화예술·교육인지, 문화·예술·교육인지, 이 단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논쟁적으로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요. 10년이 지난 뒤, 그런 논쟁적인 지점들은 다 상실해 버리고 학



교에서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틀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을 상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 둘 다 가지고 있어서 주체도 없고 타자도 없어요. 냉철하게 따져보면요. 그럼 이 열쇠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주체도 없고 타자도 없는 이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풀고 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단절된 관계를 복원해줄 학교와 강사 간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예술적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 생산성은 뭔지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적절하게 매개해줄만한 매개자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담론은 해볼 만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할 얘기는 지역에 관한 논의인데 지역단위로 광역센터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 형식주의나 평등주의나 프로그램을 니꺼 내꺼 다 베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철학적 기반들이 다 상실되고 없어요. 로컬이 없어요. 왜 경기도인지, 인천인지, 전남인지, 제주도인지……. 그럴 바에는 그냥 중앙단위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지역에 내렸을 까요. 지역에서 고민할 수 있는 뭔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화예술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좀 논쟁적으로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컬리티가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지역성, 지역주의는 새롭게 이야기하고 발견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지역주의라는 이야기만 하면 갑자기 어딘가로 숨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불편한 진



실 같은 거죠. 지역을 얘기 하면 뭔가 촌스러워 보이고, 그것이 문화예술교육의 지혜를 협소한 뭔가로 끌고 내려가 버리는 듯 한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박찬국 선배님이 광릉수목원 앞에서 논아트발아트 했을 때, 저도 가봤는데요. 그런 지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 예술이 틈을 벌리고 들어가서 뭔가를 인위적으로 하려 했을 때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전 문화예술 교육이 어떤 처방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논쟁적인 지점으로 끌어올려서 지역사회, 지역 커뮤니티가 서로 대화하게 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은 그 지점에서 얘기될 수 있어야 하고, 풀여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문화예술 유산을 남겨왔어요.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을 창조케 한 경전, 현대 기록,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요. 문화예술교육만이 아니라 인간학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점이죠. 인간학이라는 지점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 지점을 여러 가지 유형으로 레퍼런스 하면서 사회적으로 묶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대안교육, 미래교육의 본질이 썩어갈 때 양적으로 팽창한 문화예술교육은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서 친 상업주의로 물든 진보 지식인 사회를 발흥하고 그 모든 진보적 교육의 대안과 정책을 생산해낸 장본인들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이름으로 대안교육도 잡아먹고 미래교육도 잡아먹고 있는데, 때때로 그들은 문화예술교육이 마치 교육의 만병통치약인양 선전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에서 사기성 사업을 펼치기도 합니다. 철학은커녕 방법론 하나 변변치 못한 프로그램으로 해왔는데 이런 것을 변혁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교육의 참미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 네, 김종길 선생님을 포럼 시작하기 전에 만났을 때, 오늘 발제 재미있게 만드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목적인 발제를 해주셨네요. 아마 다들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가장 마음이 무거운 분들은 두 지정토론자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적어도 오늘 포럼이 뻥 한 포럼, 식상한 포럼은 아니게 된 그런 멋진 성과의 발제를 남기신 것 같네요. 토론은 인천문화재단 우상훈 선생님이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우상훈 (지정토론) ▶ 안녕하세요. 인천문화재단 우상훈입니다. 일단 김종길 선생님하신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은 다 동의하고요, 특별히 덧붙일 이야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해 12월에 저희가 주최했던 심포지엄,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심포지엄을 인천에서 했는데, 거기서 발제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하게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조를 중심으로 제가 발제를 해서 그 범위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원법 틀 안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16개 센터에서 이 법에 근거 그대로 지역 협의회나 이런 식으로 구성을 갖춰가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시도도 있고, 형식적으로 지원협의회 이런 것을 구성한 곳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구조를 구성해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학교에 단순히 강사가 파견된다 해도 학교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협력이 안 되면 제대로 안되죠. 그래서 시도단위의 교육청들, 지자체, 중앙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흥원, 이렇게 다양한 협력 주체들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효과도 나고 목적달성도 할 수 있겠죠. 실제 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협력이나 같이 가야할 파트너들의 역할 안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것들이 다 지역센터 쪽으로 지금 책임이나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집중되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센터 지정제와 고용의 불안정은 지역센터의 위상과 그에 따른 역할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두 가지만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센터가 어렵다는 것은 아니고 이것들을 통해 지역센터가 관리의 뉘앙스를 받을 정도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작년 시점에도 개선이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조금 나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문화부가 지정을 하고 공문을 통해서 사업들을 내리고 관리·평가하는 방식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문화부의 의지에 따라서 영향력을 상당히 미칠 수 있는 구조이고 이점은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원법 상에서는 지역센터가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의회나 자치단체 쪽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여지들이 항상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할 이야기는 지역의 인력구조입니다. 지역센터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업비 안에 인건

비가 포함되어 내려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책사업들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사업이 아예 그냥 정책으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그런 애매한 상황들에 처해있습니다. 현황들을 보면 몇몇 곳은 정규직 전환 한 곳도 있고, 기간제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센터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연단위로 계약하면서 2년이 되면 그만둬야하는 상황인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총위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우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어느 지역은 신분은 불안하나 처우는 개선이 됐고 또 어떤 쪽은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을 고민한다는 것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현재의 지원구조는 이게 가능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법이 포괄적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을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구속 그 다음에 그걸 하기위한 조건들은 성숙돼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이야기들,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들,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들은 수차례 되어 왔습니다. 아까 개선이 되고 있다고 표현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들이나 해결이 꼭 되어야할 부분들은 사실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식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형식적인 이야기들조차 지역문화예술교육의 가치나 중요성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교육이 의미있게 추진되려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연착륙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역 재단이 제대로 역할과 책임을 갖는 구조로 간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그런 형태의 지역 재단이 변화하면서 사업구조나 주요 방향들이 세세히 다시 정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가 심포지엄 할 때 나왔던 주요한 이야기였는데, 지역의 문화예술교육론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철학이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지역이라고 해서 중앙에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저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인천 문화예술교육론, 그것에 대한 인천 문화예술교육 과정까지도 센터나 아니면 협력구조 안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박상혁 매니저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박상혁 (지정토론) ▶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문화예술교육이 대량으로 복제되고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대량생산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거의 공장처럼 프로그램을 표준화해서 찍어내고 있는 상황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꿈꿨던 초창기의 소수의 선각자분들께서 생각하셨던 것들은 이런 대량 생산을 통해 복제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각 주체들이 긴밀하게 만나서 진정한 소통 속에서 이뤄지는 그런 예술교육을 꿈꾸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량 복제 시대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뭐 언뜻 그런 생각도 들면서 초창기에 가졌던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떠올리면서 성찰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예술교육에 관계된 지원센터에 매니저로 있지만, 예술가들도 본질에 대해서 잊고 여러 가지 면에서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처럼 예술교육에 관계된 많은 기관 종사자들이라든가 문화예술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사실 처음에 이런 기관이나 문화예술 분야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나 본인들의 꿈은 예술가와 마찬가지로 소통하고 자기 존재감을 가지는 활동을 하고자 했던 지점들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초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가 될 때 오늘 포럼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제도상의 정책을 위한 포럼만이 아니라 아까 발표를 통해서 제기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이것을 일원화 하고 현실 속에서 제도화 하는 쪽으로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부분 중에서 협력관계, 협업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문화예술교육을 논의하는 자리니까 우리가 지역이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관점에서 말을 쓰고 바라보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일 것 같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지역이라는 것은 단순히 중앙정부와 대별되는 단순한 행정적 합의체계이고 행정 전달체계 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나



온 이야기이지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을 지역단위에서 여건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명분 같은 것들이 주어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앙의 주요 시책사업 수행이라는 실질적인 존립이유에 묻혀서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단 광역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했을 때는 그런 중앙단위의 시책사업을 수행하는 수행자로서 더 나가서는 보조사업자로서 보는 겁니다. 실제 문화부 관계자께서 그런 표현도 쓰셨었어요. 행정적인 절차상에서는 물론 보조하는 것이니까 보조사업자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보조 사업자로서만 광역센터를 바라볼 때는 아까 이상훈씨가 말씀 해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한계들을 그대로 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온 이야기하고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정책사업을 이관 운영해야 하는 센터의 입장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지역맞춤형 사업까지 충분한 고민과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전개하는 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의 시책사업이라도 지역의 여건에 맞게 잘 설계하면 될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관 받아서 하더라도 이미 그 정책사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역센터가 설계에 참여할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이 설계된 상태에서 광역센터 담당자 내지는 팀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공유하는 정도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최근에 많이 개선된 추세인데요. 항상 말씀은 급박하게 이뤄져서 또는 시책사업이 갑자기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문화학교 같은 경우 주5일제 시행이 갑자기 되어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고 하지만, 토요일문화학교가 그렇게 시책사업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면 지역단위에서 또 그것의 사회적 파급력

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설계가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역의 관계가 하향식 전달구조와 행정 전달 체계로서만 계속 이어진다면 한계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율성이라든지 지역성에 근거한 문화예술교육지원이 요원하게 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런 시책사업의 대부분은 성과 목표가 중앙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같은 경우에 '올해 몇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몇 개의 학교로 확대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김종길 선생님이 말씀 하셨던 예술강사 선생님들의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토요문화학교의 경우도 그런 사회적 수요가 있기 때문에 몇 개 프로그램이 1년 중에 되어야 하고, 몇 시간이 꼭 이뤄져야 되고, 3월 며칠부터는 첫수업이 이뤄져야 되는 것이 전국 공통으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 조금 더 설계를 하고 그 여건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개량적 목표 중심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가치와 문제해결의 질적 수준이 좀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만이 성과 없는 성과주의의 오류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중앙과 지역의 협력관계가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지역 내에서도 광역센터가 오류를 되풀이해서 중앙역할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 전달 체계에 머무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협업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역센터가 지향하는 바가 지역 내의 문화예술교육 허브인데요. 자칫 잘못하면 중앙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브라는 것이 사실 여러 주체들 간의 수평적 관계를 네트워킹 하는 허브이지만, 이것이 자칫 모든 자원을 독점하고 그 독점된 자원을 시혜적으로 나누는 그런 형태의 또 다른 중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한 구조도 필요한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에는 지역에 지역 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부교육감이 부위원장이 되셔야 되는 실효성이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인 논의가 되기 힘들고, 지자체에서는 그와 유사한 위원회와 협의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논의를 위해서 차선책으로 보통 광역센터들이 선택하는 게 실무협의회라든지 추진협의회입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안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협업하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협의체나 MOU는 사진 찍고 회의하고 끝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희 재단도 그렇고 많은 기관들이 지역 재단과 다른 기관과 MOU를 맺는데 그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포괄적 의제 중심의 구조와 더불어서 긴밀한 협력을 이슈별로 그룹별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이루어져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협업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지자체와 시교육청과의 협업입니다. 교육청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 파트너와는 상시적 협의채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서울시 교육청에서 예술강사 사업이라든지 기존 사업에 있어서 교육청의 지분 또는 의견 반영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와 교육청 예술강사 상호간에 만남의 지점들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리리라 봅니다. 그걸 매개하는 것이 광역센터의 역할이 돼야 할 것이라 보고요.

전달체계 위주의 관계설정이 아니라 지자체와의 관계 설정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그렇고 다른 광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광역센터만 가지고 광역단위를 다 책임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단위에서 예술교육을 하는 부분과 어떻게 네트워

킹이 가능할 것인가는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문화공간들과 시설들과 연계할 강화를 것을 올해 사업방향으로 하고 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이라든지 토요문화학교라는 구체적인 시책사업을 함께 있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런 시설들과 연계해서 예술교육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문화재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건이 좋다고는 하지만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지역단위의 거점들과 협업이 없이는 이뤄지기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예술사업 지원구조는 예술교육 단체 전문가를 선정해서 그분들을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역거점의 커뮤니티 기반의 예술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예술교육 단체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과 함께 그런 지역거점의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식도 이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껏 성찰의 문제들이 많이 대두됐는데요. 그런 다양한 담론과 성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하기에 급급해 있는 저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관계자들과 단체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돌연변이 같은 샘솟는 아이디어들을 현장에서 구체화 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문화예술교육의 입론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지역의 협업구조 이야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위가 이야기 됐습니다. 오랜시간동안 감사드리고 오늘 포럼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포럼에서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2

경기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들 - 현장의 장애 요소 및 대안

일시 : 2013년 2월 20일(수) 오후2시

장소 :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

- 기초강연
발 제
- 지정토론1
- 지정토론2
- 문화예술교육 다시 질문하기
김인규 (미술가, 충남애니메이션고등학교 교사)
- 실천은 좀 더 과감하게
김영경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정민홍(광주북구문화의 집 관장)
- 민경은(여라가지 연구소 대표)

#02

문화예술교육 다시 질문하기

문화예술교육이 일종의 교육운동처럼 시작되고 한편으로는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 10년 남짓이 되었다. 내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와 함께 나의 교육적 이념 혹은 방법으로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실천을 했던 것이 2002년부터이니까 꽤 이른 시기이다. 나는 교과중심, 지식중심의 기능화 된 학교교육에 대한 대안으로 당시 생활중심, 또는 문화중심, 또는 체험중심 등으로 불릴 수 있는 교과간 연계, 교과와 비교과 활동의 연계 등 통합적 교육적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구했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하여 그러한 교육방법을 지속하기 어려웠으며, 대략 지난 5년간은 내가 담당하고 있는 미술의 교과교육차원에서의 접근으로 한정되었다. 반가운 것은 내가 초기 실험했던 것과 같은 교육적 방법들이 최근 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혁신학교 등에서 일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해 여러 문제들을 질문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차원의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예술강사제도를 통해 예술영역의 보충학습과 같은 방식으로 기능화 되어 자리 잡게 된 것과 관련하여, 혹은 소외계층교육의 형태 등으로 자리 잡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필요한 질문이다.

1. 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전체적인 패러다임 혹은 교육방법적 대안인가?

이에 주지(예술이외의)교과교육에서 문화예술적 접근이 무엇인지 말해야한다. 통합적 접근이라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발달단계와 관련하여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라 제도적 접근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 교과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이 현재 대체로 초등교

육 단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제도적 한계(중등교육의 경우 교육과정이 경화되어 있어 교과경계를 넘어서기 어렵다)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정서적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으로는 예술교과교육과의 관계, 혹은 차이에 대해서도 말을 해야 한다.

2. 전문화된 교과교육의 한계를 보완하는 접근인가?

그러니까 비교과(창의적체험활동, 재량활동, 방과후활동)영역의 교육적방법인가? 학교교육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 교과교육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이기도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의 통합적 성격과 교과교육의 전문화의 성격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면 비교과활동으로서 교육과정을 제도적으로 생산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3. 단지 학교교육에서 예술교육의 왜소화에 대한, 혹은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욕구 증대를 충족하기 위한 보충교육인가?

현재 학교예술강사제도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착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문화예술교육이 앞의 1번 혹은 2번의 경우에 따라 다르게 방향이 잡힐 경우 예술강사의 역할과 지위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럴 경우 예술강사는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는 전혀 다른 위상을 부여받게 된다.

4. 학교교육의 밖을 위한 사회교육적 접근인가?

이도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현재 학교는 아동문제의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형국이다. 모두하려니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역할 분담은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질문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의 부분이다. 그 차이가 무엇이며 각자 무엇을 하는가? 대상은 누구인가?

5. 이러한 질문들은 제도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제도적으로 실현될 때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된 실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내가 통합적 접근에 열을 올린 것은 대략 2002~2005년이었던 것 같다.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은 입시교육에 열을 올리는 학부모와 학교의 공격이었다. 아이들하고 공부는 안하고 논다는 것. 그리고 큰 어려움은 경화된 교육과정이 통합적 접근을 너무도 피곤하게 했다. 교사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지속하기 어려웠다. 한편으로 교육적 성과에 대한 의구심도 한몫을 했다. 통합적 접근이 학생들을 즐겁게는 만들어주지만 교과교육을 정서적 수준으로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다.

그것은 미술교육의 입장에서도 일정정도 관련이 있는 문제였다. 나는 그로인해 미술교과교육에 집중하면서 예술교육으로서 또한 문화교육으로서 미술교육을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나는 여기에서 교과교육, 통합적 영역으로서의 교육, 사회적 교육의 교육적 균형문제를 생각하게 되었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러한 관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실천은 좀 더 과감하게

오늘 이 자리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중 2차 포럼이다. 경과 및 평가, 현장의 장애 요소 및 제안,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을 큰 흐름으로 잡고 있는 이 연속포럼은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예산과 사업 확장에만 집중하여, 오히려 중요한 가치와 역할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정책 초기에는 물론이고, 기초지원센터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광역지원센터가 지정되고 나서 한동안 현장에서 문화예술교육정책에 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다가 2012년부터 하나 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문화연대가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몇 차례 포럼을 진행했고, 배재정 국회의원실에서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자료집을 내기도 했다. 인천만 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전환”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전 두 해의 심포지엄이 ‘잘’ 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새롭게’ 하기로 관점이 바뀐 것이다. 여러 자리에서 만나는 지역 안팎의 사람들과의 짧은 대화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사업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주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들 -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장애 요소 및 대안”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부터 구체적 사업에 대한 것까지 점검해야 할 것이 많겠으나, 지역 현장에서의 경험에서 얻은 몇 가지 문제 인식과 의견을 전체 논의에 보태고자 한다.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나는 지원정책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만나고 성장한 사람이다. 내가 정책 현장에 들어온 건 2008년이다. 2007년에 인천 남구 기초지원센터로 지정된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일을 맡게 된 것이다. 첫 해에 나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해 그리고 기초지원센터의 역할과 임무가 무엇인지 숙지하고자 노력하면서, 그 전 해부터 해온 무지하게 많은 수의 사업을 진행해야 했다. 그때 지역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운영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등에서 경험과 역량을 쌓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을 믿고, 이들에게서 배우고, 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 해를 그렇게 보내고 나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해도 변화하고 하고 싶은 것도 생겼다. 2009년에는 열린 교류의 기회로 네트워크-파티를 열고, 공모를 통한 지원사업을 시도하여 새로운 사람과 사업을 찾고, ‘놀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적 접근’을 주제로 교사직무연수도 기획해서 진행했다. 돌아보면 첫 해는 먼저 활동하던 사람들에게 의지하여 한 해를 지나왔고, 두 번째 해에는 이 사람들과 손을 잡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한 해를 지나온 것 같다.

너무 많은 사업에 역량이 분산되다보니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2010년에는 사업을 주욱 펼쳐서 하지 말고, 접을 건 과감히 정리하여 전체 사업을 재편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덜컥 기초지원센터 종료!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공모분야인 지역거점네트워크 사업으로 1년을 더 남구학산문화원에서 있었지만, 기초지원센터 일을 담당하면서 고민했던 걸 할 수 있는 사업 형태가 아니어서 상실감이 아주 컸다. 그리고 나선, 2010년에 광역지원센터로 지정된 인천



문화재단에 2011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몸담고 있으니, 이제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에서 6년차 사업을 맞게 된다.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오랜 시간도 아니다. 하지만, 3년 만에 끝난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또 3년 만에 끝난 기초지원센터, 2년 만에 끝난 지역거점네트워크. 이러한 지원사업의 단절 속에서 나보다 먼저 지원기관에 들어와 지역에서 정책전달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앞으로 한동안은 유지될 것 같은 광역지원센터의 경우도 상황이 좋지 않다. 다른 지역의 광역지원센터 담당자를 만나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아무개는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많게 잡아야 전국에 100명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빠져나간다. 이 일이 사업 진행을 위한 말끔한 행정처리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한다면, 이들 전문 인력들이 경험과 실력을 축적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가치에 부합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일자리, 일자리, 일자리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은 거의 대부분 '일자리' 수를 늘려야 하는 예산이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세팅하는 사람은 이 난해한 함수를 풀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표(일자리 수/예산액)와 기준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석해보자면 이런 식이다. 전국에 있는 16개 광역지원센터는 연간 3억 원의 예산으로 4명(이하)의 전문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광역단위의 규모에 비



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이지만,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독자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예산은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예산이 된다.) 다른 지원사업은 일자리 확보 측면에서 더욱 뻑뻑하다. 예술강사는 일자리와 직접 연동될 수 있으니, 문화예술교육사업 전체 예산 중 예술강사가 보따리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야 하는 학교/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학교예술강사 예산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예산이라는 것이다. 예산을 중심으로만 보자면, 매해 가능한 많은 예술강사를 탈락시키고 새로운 예술강사를 선발해야 좋은 성과를 낸다는 얘긴데, 이런 상황에서 예술강사 평가는 교육역량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과정이 되기보다 교체를 위한 일부 예술강사 퇴출에 명분을 제공하는 절차가 된다.(다른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보다는 제약이 약하다고 알고 있기는 하다.) 교수 행위와 신규 일자리를 짝지을 수 있는 용기가 무섭다. 예술강사 지원이 아니라 단체 지원 형식으로 운영하는 사업 중에, 단체가 자신의 특장을 살린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만나고 싶은 학습자를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와 가능성이 있는(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에서도 일정 규모의 일자리 참여자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 조건은 현장에서 기묘한 상황을 야기한다. 조직을 잘 꾸려온 단체가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예술교육자는 이미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참여자로 등록할 수 없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외부 인력을 강사로 섭외하여 교육을 운영하는 단체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용이한데, 이런 상황에서는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의 역량강화라는 또 다른 목적은 무색해진다.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이 중앙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부서 및 기관의 예산을 문화예술교육사업에 끌어당겨 사업을 확장해온 노고는 인정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일자리 확보의 제약 안에서만 지원사업을 구성해야 하는 한계를 풀어내지 못하면, 각 지역 현장이 지닌 에너지에 부응하는 지원을 하지 못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동가가 성장하려면

각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각기 고유 목적이 있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견지하고 있는 중요한 목표는 예술교육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성장이다. 교육방법론을 찾아가고,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진화시키고,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가고, 그런데 그 변화가 무척 더디게 느껴진다. 어떤 경우는 변화의 가능성이 많은 교육임에도 매해 똑같은 교육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나는 프로그램의 질이 하향 평준화되었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미 하향 평준화된 후에 내가 들어온 걸 수도 있으려나.)

그런데, 이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타당하냐는 의문도 든다. 지역-예술교육-실천가들이 스스로 성장하려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냐는 것이다. 단적으로 계산해서 주 5일을 교박 하루 2시간씩 교육활동을 하면 한 달에 160만원도 안 되는 수입을 얻

게 되는 것인데, 일부 학교예술강사 말고는 예술교육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다.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경우는 실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일자리 수도 있어서 한 사람이 많은 교육을 할 수도 없다. 물론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 말고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사업도 하고 있다. 학습모임과 역량강화 활동을 지원하고, 모니터링과 워크숍, 컨설팅을 진행하며, 매개자 양성과정과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하지만 광역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듯이, 지역의 각 주체들이 성장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먼저다.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단위 사업 안에서만 문제없이 돌아가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지역-문화예술교육-실천가들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안에서, 여타 공공적인 체계에서 그리고 예술활동을 포함한 다른 사회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함께 만들어 가야 문화예술교육도 자기 가치를 확장시켜갈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유기적으로 구상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많은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알고 있다.

앞에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 단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여건 마련, 문화예술교육의 정책지향에 부응하는 사업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는 예산 조건, 지역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지역주체 활동 여건 조성에 관해 강조하



고 싶은 지역 현장 경험 몇 가지를 정리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어려운 점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글머리에서 소개한 포럼 등 이전의 논의에서 많은 제안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재확인과 내용 구체화, 진흥원-광역지원센터 간의 역할 분담과 기초 및 더 작은 단위의 거점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완성, 지역지원센터의 운영 현실화와 전문성 강화 및 자율성 확대 방안, 지방조례 제정과 지원협의회를 통한 예산 확보와 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성 등에 동의한다.(다른 자리에서 깊은 논의가 필요할 텐데, 학교예술강사에 대해서는 예술강사 정규직화 보다는 보완적인 서비스에 머물러있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탐구와 논의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을 알고 있거나 해결방안을 찾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정책 매개자는 기본적으로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사업을 조금씩 개선해가는 사람들이다. 여기에 조금 더 과감한 판단과 약간의 무모한 실험을 감행할 수 있어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그게 정답은 아닐지라도)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실천으로 찾아가면 된다. 이미 많이들 지적했듯이, 우리가 단순 관리와 사업 수행 업무에 떠밀려 하지 못하고 있는 건 바로 '실천' 이다.

광역지원센터는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었다.

어떻게 하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겠냐고 문의하는 단체들에게 묻게 된다. “하고 싶은 게, 하고



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지원사업이 제시한 틀이 아니라,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지향과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내 입에서 나간 이 질문은 다시 내 귀로 돌아들어온다.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하려는 게 무엇인가?” 예산을 주는 쪽에서 하라고 하는 것 말고,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이 두 가지가 잘 맞물리게 하는 일이다.

문화예술교육정책은 이제 10년을 바라보고, 광역지원센터도 5년차 사업을 시작한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광역지원센터는 ‘바른생활 어린이’ 기를 지나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든 듯하다. 자신의 ‘존재’를 묻고, 때로는 ‘거부’로써 주체를 형성해가는 시기. 광역지원센터가 이 과정을 잘 겪어 생산적인 주체로 성장해야 전체 문화예술교육도 성장할 수 있다. 또 그래야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자기 감각과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는가? 광역지원센터가 단위 사업에만 쫓기게 되면 제 역할을 영영 못하게 된다. 자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성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인천지원센터는 2013년을 맞으면서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 인원의 추가 확보는 없었지만 업무 조건을 다른 재단직원에 준하여 개선하였고, 해마다 늘어나는 사업규모 속에서 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사업 구성에 있어 지역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사업으로 설정하고 연구 영역을 정비하여 역량을 더 많이 투여하고자 하였다. 팀 내에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조직과 공유하여 현실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더 찾아가야 할 것이다. 연속 포럼에서의 논의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대응을 넘어 대안 마련과 정책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는 집중된 논의와 조직된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개별 지원센터가 풀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번 포럼에서 서울지원센터 박상혁 매니저가 제안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 구조로,

이번 연속포럼을 체계화하여 <문화예술교육 정책 포럼>을 확대 구성하는 방안도 시도할 수 있다.
대안을 찾아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천' 이다.

▶ 많은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알고 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2기
힘들게 하는 것들 -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장애요소 및 대안

박형주(사회자) ▶ 세 번의 연속 포럼을 기획하면서 취지를 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취지를 확인해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이 대략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그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지금쯤 걸어왔던 길들을 점검해보면서, 향후 10년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풀어놓는 이야기 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 자리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문화부에서 만들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수도권에 있는 세계의 광역센터가 중심이 돼서, 문화연대와 함께, 중앙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지역에서 먼저 그런 이야기들을 발언 하면, 이 발언들이 계기가 되어서 다양한 의사소통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세 센터와 문화연대 문화교육위원회가 모여서 연속 포럼을 진행하기로 했고, 오늘이 두 번째 자리입니다.

첫 번째 1차 포럼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 왔는지 경과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성과 지점이 있고, 그 만의 과정에서 이 10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나누는 자리였어요. 첫 번째 자리다 보니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주로 지역에서 중간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광역센터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10년의 결과가 실질적으로 광역센터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 광역센터가 봉착해 있는 문제가 어찌 보면 중앙이 지역의 문화예술정책들을 펼칠 때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샘플사례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 나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 욕구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자리가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지 않으나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리는 발제와 토론하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시면 충분히 아시겠지만, 기조발제 해주실 김인규 선생님은 실제 학교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면서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초창기 문화예술교육이 발흥할 때부터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같이 했었고, 그걸 학교 안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 오셨던 분입니다. 김영경 선생님 또한 남구학사문화원이라고 하는 인천의 현장에 계시다가, 최근에 중간지원조직인 광역센터로 오셔서 나름의 차원사업을 하시면서 느끼는 문제가 있으실 겁니다. 오히려 김인규 선생님이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집중해서 확대해간다면, 학교밖, 사회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 지원조직의 문제들을 김영경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지 않을까 심습니다. 두 분이 기조강연과 발제를 하시고, 토론으로 정민룡 선생님과 민경은 선생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정민룡 선생님은 현재 광주북구문화의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들 : 현장의 장애 요소 및 대안
사회 : 박형주(하자센터)
기조강연 : 김인규(미술가, 미술교사)
발제 : 김영경(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토론 : 정민룡(광주북구문화의집 광장), 민경은(여러가지연구소 대표)

집이라고 하는, 진짜 지역이죠,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을 벗어나서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민경은 선생님의 경우는 공간 자체가 없이 하나의 단체를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발제와 토론자의 면면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가 잘 풀리면, 다양한 시선에서의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광역센터라든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가급적이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현장에 대해, 네 개 주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이야기들을 풀어가볼까 합니다.

김인규 (기조강연) ▽ 안녕하세요. 김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제안을 받고서,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 지역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았고, 안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의무감에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있는 위치가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공교육에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의 실천 문제보다는 조금 더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데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던 것은 2000년 초기, 문화연대하고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접했었고, 제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실천을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것은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했었고, 실천을 했었어요. 그게 시간도 꽤 됐네요. 이제 1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아주 적극적인 실천을 했던 것이 2002년에서 2005년까지 6년 동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차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이야기가 나오고 아르떼가 생기고, 문화예술 강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처음에 문화예술교육에 접근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학교교육이 보여주는 지식중심의 기능화 교육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교육을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 관점으로서, 문화예술적 관점으로 지식중심의 기능화된 교육을 다시 재편하는 그런 새로운 운동의 차원에서 교육운동으로서의 문화예술운동을 바라봤고,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많은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교육이 아르떼를 만들며 문광부 중심으로 막 돌아가고, 문화예술 강사를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이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밖에서 제도적으로 정착 되면서, 학교 밖에서 예술강사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학교 안의 교육은 아무런 변화를 가지지 못하는,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된 형태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된 것이고,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되는가, 그 말씀만 드리고 제가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저는 교사니까 여기서 이 얘기를 할까 했습니다. 교육하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기초조직이 학교잖아요. 근데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자가 붙은 순간 이걸 교육문제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학교는 국가에서 만들어놓은 국가교육과정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근데 10여 년 전에 문화예술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교육을 다시 바라보자라고 하는 운동이 전개됐던 것이고, 그런 운동에 제가 동참을 했던 것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기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미풍도 미치지 못한 거예요. 이 안에는, 미풍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르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술강사 제도를 통해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들어오는 형태가 됐는데, 아르떼는 학교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학교도 문화예술 교육 자체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현재 형성이 돼 있어요. 기존의 학교나 교육제도 쪽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오직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 안에서만 이뤄져요.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나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5월에 프랑스에 가서 그곳 학교들을 다니면서 수업참관을 했습니다. 주로 예술, 음악, 체육 수업을 제가 참관했어요. 제가 체육수업을 참관하던 날, 체육강사가 학교에 들어와서 초등학교 교사와 체육강사가 함께 팀티칭으로 아이들에게 배구수업을 하더라고요. 수업을 하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수업 평가 형식으로 제가 참여를 하고 같이 토론이 진행되는데, 그 자리에 장학관이 와서 앉아 있었고, 그 다음에 체육교사, 체육강사, 이 체육강사는 문화예술강사예요. 거기서 장학관하고 체육강사가 갑자기 논쟁이 벌어졌어요. 자기들끼리 막 열변을 토하면서 토론을 해요. 나중에 통역관한



테 물어봤죠. 둘이 왜 논쟁을 하는지. 내용인즉슨 체육강사가, 내가 체육강사한테 당신의 역할에 대해 얘기를 해 달라, 학교 와서 뭐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강사가 자기 역할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을 듣다가, 장학관이 듣고서 화가 난거예요. 그래서 체육강사와 장학관 사이에 논쟁이 된 건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학교 교사의 역할과 예술강사의 역할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가지고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강사로서 체육강사는 학교 와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인지, 서로 이견을 가지고 막 토론을 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프랑스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싸우고 토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말하자면, 이걸 가지고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당신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제도 교육 쪽에서는 그 논의를 할 의사도 없고, 할 필요성도 없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과정 안에는 문화예술교육 영역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교육과정 안은 문화예술교육 영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프랑스의 교육과정은 문화예술교육 강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지언정,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안에서 교사들하고 함께 통섭적인 과정을 해보려고 공공하다가, 포기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 속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의사도 없고, 어떠한 관심도 없는 가운데,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막혀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학



교가 교육을 다 할 수 없잖아요.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분명히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하고,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인지를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이고,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 학교가 그 모든 교육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의 사고체계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학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학교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야 예술강사의 역할과 교사의 역할이 나뉘지고 그러면서 제도적으로 서로 결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이 없습니다.

박형주 ▶ 제가 들으면서 와 닿았던 부분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학교 현장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교육이라는게 처음 논의를 할 때부터 실제 학교 교육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된 것이며, 초창기 사업도 그래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사업들로 많이 세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10년이 지난 지점에서 여전히 학교는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더 공고해져 가는 것 같고, 그 속에 부수적인 역할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들을 접근하고 있는 모습이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서로의 역할과 서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 자체가, 실제 논의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테이블이 부재한 것이 어떤 문제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광역센터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교사연수라든지, 장학사 연수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고, 지원협의를 통해서 만들려고도 하고, 현장에서 프로그램할 때도 그런, 그 분들과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논의 자리를 만들려고 시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토론할 때 이런 부분들이, 경험들과 그런 토론, 논의 테이블을 만들려고 했을 때, 어디에서 장애가 생기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인규 선생님 기초발제 감사드립니다. 바로 김영경 선생님 발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경 (발제)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요 해봅시다. 불평만 하지 말고.” 그냥 이거고요. 발제문에 정리한 내용은 제가 이런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하니 같이 뭐 하고자 할 때 참고하셔서, 부르시면 잊지 않고 불러주시면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웃음)

제가 요즘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광역센터,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문화예술교육이 정말 커졌는데, 일하느라 바쁘다, 광역센터가 뭐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한다. 우리 역할이 뭔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닌데, 매번 예술강사를 비롯해서 이것 저것 해야 되고, 사업 내려오고 그거 하느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꿔내자” 라는 게 제가 만나는 정책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의식이라고 보고, 이 자리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초기에는 당연히 문화예술교육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역센터 지정되고 나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체제가 일단락 정리 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광역센터 지정되고 나서는 이런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이제 작년쯤부터 다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만 하더라도 인천이 2010년 2차년도 지정 되서 광역센터 사업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하는데 주제가 지역에서 네트워크를 얼마나 잘 만들까, 교육청이랑 어떻게 잘 만날까, 지역에 있는 단체랑 어떻게 잘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었는데, 작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어떻게 바꿔볼까가 주제였습니다.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지금은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때가 아니나라는 생각을 저희도 했고, 이 자리 같이하고 있는 경기 지원센터나 서울이나 문화연대에서도 쪽 해오시던 고민을 이제 같이 풀어보자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누구인지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초기에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2008년에 기초지원센터가 있었거든요. 기초지원센터 2년차부터 인천 남구에서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일은 뭔가, 이런 고민을 열심히 하면서 무진장 많은 사업을 하면서 한 해를 보냈고요. 그렇게 한 해 보내고 나니까, 조금 보이더라고요. “아, 이사람들하고 내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 역할들을 해야겠다” 라는 게 떠올라서, 같이 호흡을 맞춘 거죠. 첫 해는 제가 이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겠다라는 게 주요한 저의 목표였다면, 둘째 해는 이 사람들과 보조를 맞춰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분이 쪽 잘 갈 수 있게 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두 해를 보냈습니다. 그때쯤 들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너저분하게 한



다, 여러 가지, 그때는 기초지원센터죠, 그 역할 중에서 정말 중점을 잡아서 하자, 평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해로 기초지원센터가 종료 돼버렸죠. 3년 사업 후 끝. 그리고 2010년인가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한 유형으로 거점네트워크라는 게 있는데, 저는 거기서 한 해 더 좀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거점네트워크라는 모델이 지원센터보다 훨씬 축소된 그런 것이어서, 많은 시간을 상실감 속에서 보냈습니다. 2010년에 광역센터로 지정됐어요. 경기도가 그렇고, 서울은 한 해 더 먼저 됐죠. 2011년에는 광역센터로 들어가서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중간조직에서 일을 하고 있고, 3년째 됐습니다.

이러면서, 나보다 훨씬 더 먼저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고민하고, 활동했던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그분들 찾기가 힘들어요. 다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인천에서는, 이쪽에서는 오래된 거죠. 정말 아까워요. 1년 2년 이렇게 쌓았던 경험을 돌아보면 그 경험을 먼저 하셨던 분들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광역지원센터 전부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갈 때마다 누구 그만뒀다더라, 아주 자주 듣습니다. 광역지원센터의 역할이 행정처리 깨끗하게 잘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내용적으로 채워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들이 자기 역량을 쌓으면서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고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 저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 관련한 내용인데요, 정책에 관해서 문제가 무척 많은데 저는, 참 해결하기 힘든 지점인데 “일자리 문제 풀지 않으면, 다각적인 시도 이런 것은 해보기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일자리 예산이에요. 교육정책 쪽에 계신 분들은 정말 머리가

터지실 것 같은데,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책의 고유한 가치가 있고, 예산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이 사이에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얼마 만들 수 있고, 이런 거죠.

제가 해석해 보자면 광역지원센터는 문광부랑 지자체에서 돈을 모아서 년 3억 원을 줘요. 전담인력, 전문 인력을 4명 쓸 수 있어요. 돈 계산만 하면 1년 사업에 4명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이게 제일 여유 있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돈으로, 그래봐야 1억 5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자체적인 사업을 꾸릴 수 있어요. 다른 사업은 교육하게 하고 강사비 줘서 일자리 등록하게 하는 것 말고 다른 꿈을 꾸기가 힘들어요. 다른 지원정책을 구상하기가 힘들죠. 저도 작년에 안 사실인데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이 신규일자리 예산이에요. 그냥 일자리도 아니고,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이 예산에 충실하려면 매해 다 자르고 다 새로 뽑으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을 모르지는 않아서, 다른 신규일자리보다 압박하지는 않지만, 학교예술강사가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제가 계속하고 있는 지역특성화 지원사업에서 올해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마을 탐사하고 이런 쪽으로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것도 일자리 만들어야 되요.

일자리라는 것이 사업 전체를 세팅하는 데서도 그렇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운영하고 해가는 사람들의 여건이랄까, 이런 것을 좀 왜곡하는 면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저로서는 가능하기가 힘든데, 정책에서 아주 깊은 곳의 문제는 일자리인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유연하게 하

고, 혹은 요구를 줄여내는 이런 게 되지 않으면, 아예 일자리하고 관계없는 예산을 따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풀어 가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럼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역센터한테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에서 제시되는 일들 잘 하라, 그거만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예산 뭐 얼마나 됩니까……. 매년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얼마 안 돼요. 정책 취지에 맞게 이런 것 저런 것 가려서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서 지원정책 말고, 인천이면 인천, 경기면 경기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커져야 하는 거죠. 이걸 정책 안에서만 사고해서 되는 것들이 아니죠.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삶을 꾸려가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지원할 때, 어떤 분들에게 어떤 내용을 지원하겠다,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풀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해야 되죠. 그래요, 정말로 이분들이 이 하나 하나의 경험이 비록 단절적이더라도 한 해 한 해의 경험이 역량으로 쌓이고, 이 분들이 조금 더 내용을 채워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 인천에서만 만나는 분들과 어떤 교육방법론으로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기회가 닿는 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이게 지속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하고 싶은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떤 건지, 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논의를 단체랑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 나왔던 것처럼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정말 그럴 수 있는 조건인가, 생존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든 상황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일자리 말씀 드렸지만, 대충 계산해봤는데요, 한 시간 강사로 4만원이잖아요. 중앙에서 정해진 게, 하루에 보통 두 시간 해요, 더 많이 하기도 하지만, 두 시간, 하루에 8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사회문화예술교육같은 경우에 하루에 몇 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두 시간 딱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 준비하고 정리하잖아요. 이분들은 하루에 한 번 하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쉬지 않고, 주말 빼고 쉬지 않고, 매일 월화수목금 주 5일 일을 하시면 한 달에 160만원 됩니다. 이 정도가 문화예술교육을 하시는 분들, 지역에서, 자기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수준이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량을 강화하라는 것은 사실은 저 스스로한테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런 분들보다 경제적으로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도 자기 역량을 키우는 건 쉽지 않거든요. 정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기 역량을 키우려고 하면, 제도 안, 제도 밖, 이분들의 생활을 꼭 봐야 어떤 지원을 하고 어떤 것을 함께 구상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정책이 있고, 학교와는 다른 측면이 있을 텐데, 학교랑 만나는 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교육지원정책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영역에서 혹은 민간 쪽에서, 활동의 영역을 넓혀 가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 이런 문제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문제와 그 해결방안을 알고 있다, 라고 선언을 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인가?” 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해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기존에 문화연대에서 논의 된 것들을 보니까 많은 의견이 정리되기도 했더라고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재확인하고 질문하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진행되고 있는 일들의, 진흥원과 혹은 이전의 기초지원센터나 더 작은 단위에서의 지원체계, 전달체계, 센터 현실화, 전문성 강화, 자율성, 조례 제정, 예산 확보, 각 지역에서 지원체계도 만들고, 종장기 계획 수립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많은 부분에 동의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하나하나 달성해 갈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깊게 이야기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학교예술강사에 대해서 정규직화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학교예술강사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해서, 정규직화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전면적인 곳에서의 재검토와 재편이 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 자리도 그런 대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밀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많은 문제의식은 서로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정책매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한해 사업을 하면, 어떻게 했는지,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가고 있거든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조금 더 성큼, 조금 더 과감하게 걸음을 내딛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못한다면 내가 처해 있는 다른 많은 일에, 일을 핑계로 뒤로 숨게 되는 거거나, 내가 알고 있는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서 확신이 좀 부족한 거겠죠. 조금 더 과감하게, 그러기 위해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준비과정을 해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광역센터가 이제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좀 늦은 것 같아요. 정책 초기에는 정책 이해하기 바쁜 면이 분명히 있고, 어떻게 하면 요구하는 것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정상인데, 이제 좀 알잖아요. 정책도 좀 능동적으로 재해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부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번 포럼에서 박상혁 서울지원센터 매니저께서 문화예술교육정책 수립구조 이런 것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말로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을 실제적으로, 자체적으로 해나 가자라는 제안을, 매니저님 말을 보태서, 힘을 엮고 싶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박형주 ▶ 크게 한 번 정리를 해보면,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10년을 넘어서면서 규모는 엄청나게 확대가 되고, 그러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졌고, 여기저기 수요도 있다고 하니 사업도 되게 커져서, 무지하게 바빠졌는데, 과연 이게 지속가능한 방식인가, 지속가능한 구조로 이게 만들어진 거냐, 하는 의문을 던지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고, 결국 그 일을 1년 정도 열심히 했지만, 그 사람은 그 일에 지쳐서 나가떨어져서 그곳을 떠나고, 계속해서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 일을 반복하는 방식의, 지속 불가능한, 누군가의 희생을 토대로 한 이 구조에 미래가 있는 거냐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김인규 선생님의 출발지점하고도 같은데, 무언가를 어떻게

게 잘해보자라는 논의들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동안 이 일을 우리가 “왜 하나” 라는 부분을 놓쳐버린 것 아닌가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자는 의미에서 출발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정민룡 (지정토론) ▶ 처음에는 여기다 적을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장애가 없는데 왜 장애를 이야기 할까 생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조건이 어디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교육이 가장 좋은 조건에 있다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준 적이 어디 있었으며, 일자리까지 만들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서, 지금 장애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책의 장애요소가 있는가, 실제 현장에서 장애요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넘치고 넘치고 다 넘치는데, 일자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언제 문화예술 하는 사람이 일자리에 국한되 가지고 일자리 때문에 일한 적 있었습니까? 누가 문화예술 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줬습니까? 일자리 스스로 자기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화예술교육이, 장애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지금 어느 정도 이야기 되면서, 고민하면서,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문화예술교육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예술강사가 만들어지고, 프로그램이 무지하게 쏟아지고, 학교 이야기 했으니까, 학교하고 연계부분도 가져가고, 언제 그런 적이 있는가, 문화예술교육을 정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저는 생각이 안 나더라



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본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그 가능성이, 세 가지 키워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를 정리하면, 지금까지 10년 동안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흘러왔었고,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겠고, 저는 한편으로 짧게 이야기 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또 문화예술교육은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 외에도 전 세가지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역을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역설적인데요, 문화예술교육이 중앙창구에서 이뤄지다가 지역으로 나오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거기에 따른 장애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은 뭐냐면 지나치게 문화예술교육을 특수화 시킨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보편적인 것들을 지역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특성화 시키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도 나오더라고요. 일단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넘어서고,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서 진행되는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소재가 지역적인 소재이거나, 아니면 지역적인 관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도 지역적인 관계의 한 축입니다. 지원센터, 문화재단 등과 잘 지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이 꼭 생기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이 지역 자체를 아주 소극적으로, 계몽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지역문화예술교육에서 지역이라는 의미가 강점으로 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큰 장애요소인 학교입니다. 김영경 선생님이 말씀 하셨는데, 처음에 문화예술교육 할 때만 해도, 학교하고 연계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학교라고 하는 구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쯤 되면서 학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좋은 의미에서의 정리인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틀 자체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는 갖춰진 틀이 없으면 절대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갖춰진 틀을 가지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김인규 선생님이 말씀 하셨던 것처럼 교과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지금에서는 선부른 욕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 번째는 예술입니다. 예술이라는 것 때문에 힘듭니다. 왜냐면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이 들어오면서 훼손시켰다고 하는 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아니 예술창작지원이나 이런 것 받느니, 문화예술교육 하나 받는 게 낫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예술가들의 탄탄한 지역적인 기반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곳에 흡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모색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보태자면 역설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발전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요즘 들어 많이 드는 생각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남기는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게 너무 서운합니다. 남기는 것 하나 없이, 한 해에 천만 원 이천만원 지원



해서 진행하면 끝, 이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차라리 악기라도 남기자, 그래서 많은 악기들이 남아지고, 문화예술교육 진행하는데 재료들이 남아지고, 이것 자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 공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거나, 공동의 연습장을 만든다거나, 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결국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문화예술교육의 갖춰진 틀 자체를 넘어서서 다른 영역하고 접견들을 계속 시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저는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교육 자체로 기능적으로 남는 게 아니라, 다른데 솔직히 창작지원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하고 만나는 지점들을 살려서, 문화예술교육의 성과가 지역문화, 지역문화예술 자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잘 조정이 돼야하고, 그런 실천 활동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자체를 넘어서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원사업을 넘어서는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 사업도 결국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네트워크 사업하고는 다른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계모임 같은, 계모임, 이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원사업 때문에 자기들이 정책을 얘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정책적인 제안 자체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 기반 자체가, 문화예술교육을 10년 동안 했으면, 그런 남는 것들은 분명히 나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지역에서 남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지원 자체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지원체계라고 하는 이 유리한 조건 하에서 어떻게 더 실험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제안하고 도발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런 모임도 필요하고, 계모임도 필요합니다.



민경은 (지정토론) ▸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느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을 한 마디로 정리하기 위해 한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가 강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고, 그렇다면 학교가 우리 강사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가에 대한 구조들을 실험하는 그런 활동을 작년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사들하고 워크숍을 진행했었어요. 근데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2주가 지나고 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방법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교사로서의 믿음도, 일단 경험을 통해서, 2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실망하신 거지요. 학교가 강사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워크숍 진행을 통해서 서로 관계 맺기를 시도했는데 “무엇이 문제였을까?” 고민해 보니까, 서로 상호 이해하는 그런 워크숍 보다는 결국에는 교육과정 중심의 워크숍이 진행되었던,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할 수 있는 교육과 학교가 할 수 없는 교육이 있음을 “내부에서 알고 있는가?” 라는 의문도 들었어요. 그 이유는 한 학기 동안 저희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학교 교사들끼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당분간 저희들을 만나고, 당분간 이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이런 아 이템을 획득한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인데요, 저희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자기검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단체들이 지원사업 흐름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그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를 느끼고 있습니다. 단독성을 좀 더 획득을 해야 할 것 같고, 올해 지역특성화 기획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깊고 심

심한 동네 읽기라고 하는 제목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프로그램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깊고 심심한 동네읽기라고 하는 제목을 보고 있으면 좋은데, 과연 이게 지역에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제목인가□□. 이거는 단순히 기획자와 예술가의 마인드에서 나온 제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할 때 진정성을 대상에서 찾게 되는 단체의 습관이라든가, 그리고 지원사업에서는 지원사업 틀에서 기획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단체의 정체성을 찾는 단체의 습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간 없이 지금은 유목을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정체성은 주민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학교와 지역의 문제, 또 그런 것을 넘어서 단체에서 갖는 이런 문제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하면서의 장애요소가 아닐까라고 하는 반성적인 시각에서 생각을 해보면, 또 하나 문화예술교육 존재의 단독성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인식이 되냐면요, 하나의 아이টে이고 프로그램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지역문화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요소라든가, 그리고 또 지속성에 따라서 과정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으로 인식되어지기보다는 그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 프로그램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인규 ▶ 학교 안에서는 할 수 없는, 학교 밖 공간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주면, 아까 말씀 드렸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술강사들이 학교 들어오면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토론을 해야 된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학교가 할 수 있는 게 뭐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뭐고, 이걸 토론을 해서 그걸 좀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돼 있으니까 “문화예술교육이 뭐죠?”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는 거죠?”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교사가 담당할 수 없는 어떤 또 다른 교육의 영역이야” 라고 될 때는 교사도 그 부분에서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현재는 뒤엉켜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부에서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냥 밖에서만 계속 두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김영경 ▶ 사실은 말씀하신 게,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비슷한 게 있어요. 단체가 지원사업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요. 그럼 저는 “단체가 하고 싶었던 건 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게 빨라요. 내가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지원제도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랄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풀지 참 힘든 부분이긴 한데, 단체가 자기 활동을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경향이 있는 건 분명한 거 같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단체도 그러지 않기를 원할 테고, 우리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쉽게 풀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한 거 같고요. 그게, 그 이유는 지원 없이 활동하는 것을 못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정민룡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사업의 틀에 갇힌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왜냐면 지원하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 갇힌다는 얘기가 지원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고유성들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활용하는 단체, 주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잘못 활용하고 있는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지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을 때 저는 그래요. 지원사업은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그 사업에서 이뤄야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걸 지역 차원에서 설계가 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성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기능교육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부분이 있고, 현재는 상당히 영역 자체가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이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막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거든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하는 그 틀을 활용하면서 실제 지역단위에서 같이 뛰고, 뭔가를 같이 이뤄낼 수 있는 그 설계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근데 그런 설계를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이 만들고 해야지, 문화예술교육이 끝나고 나서, 개별적인 단체가 애들하고 만나서 잘 놀았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걸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잖아요. 악기 나눠 쓰고 연습실 돌려쓰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기자재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 예술자원 자체를 서로 나눠 쓰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저는 공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문화예술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틀은 기존의 개별적인 프로그램 단위의 지원사업과는 다른 설계가 필요하고, 물론 그걸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얘기해버

리면 좀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 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센터가 친구도 만들어주고, 엮어주고, 그렇게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원재 ▶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최근 서울이라는 지역의 지원기관들에서 원하는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나면 “다원예술에 기반해서 문화예술콘텐츠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조만간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하고, 마을 주민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텃밭을 가꾸고, 정산을 잘하는 사람” 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하면, 저는 문화예술만 놓고 봤을 때, 교육에서 출발하지 않고, 문화예술에서 출발한다고 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에서 가장 큰 논쟁의 대상이자 주제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논의가 별로 이뤄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르떼나 이런 기관은 차치하더라도, 문화예술교육 현장이 엄청나게 파이가 커지고, 엄청난 사업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실 교육 자체에 대한 토론이 별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의 그런 광의적인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문화예술행위가 아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경향성을 만들어 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학교예술교육과 사회예술교육이라는 분류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분법이 기관과 정책 공급자와 현장 예술가들 양자 모두에게 가장 편한 알리바이를 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둘러싼 불꽃이 일어나지 않고 있고, 사실은 김인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입시교육 중심의 공교육 제도를 차치하더라도, 문화에

술교육을 둘러싼 교육적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최대 장애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저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아르떼, 광역지원센터를 비롯한 문화예술교육 모델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의 현실이 정민룡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사업들이 있었던 적이 있는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그것을 문화예술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도 되물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 정책이라는 비판처럼 교육적 정체성이나 기능 또는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예술지원제도 혹은 공공문화예술 지원정책을 둘러싼 플랫폼의 변형 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더욱 더 현장의 접점, 현장에서 발견되는 문화예술교육의 교육적 관계와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인규 ▶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선생님들과 많은 예술가들이 실천들을 하셨어요. 안 한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실천들을 하셨는데, 이게 개인의 희생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나 이거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열정으로 다 하는 거고, 예술강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 몇 푼 받고 더 많은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성과를 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계속 될 수 있나요? 지쳐 나자빠지는 거예요. 교사들도 지쳐 나자빠지고, 예술강사들도 지쳐 나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축적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성과들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어떠한 정

책 통로나, 성과들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개인의 희생으로 이뤄진 어떤 사건으로만 끝났지, 제도적 반영까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고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민룡 ▽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학교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어쨌든지 예술강사라고 하는 틀이 있고, 제도가 있고, 만나고 있어서 접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 수준이 높거나 그러지 않더라도, 예술강사라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게 학교 내에서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밖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생각하다보면, 너무 프로그램으로 쪼개지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공공기관 문화시설이 가지고 있는 기능에 문화예술교육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을 못가지고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열정과 헌신을 받쳐서 지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금 저는 예술교육이 대안적인 예술교육공간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공간은 오로지 예술교육이라고 하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의 형태는 결국은 공적인 부분, 공공의 영역을 확보하려면 문화 자체를 누가꾸리느냐고 하는 주체 문제가 생기고요, 주체문제는 결국은 문화예술교육의 다양한 주체들이 십시일반 하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재미있는 대안공간이 지역에서 다양하게 좀 많이 나오면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인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삶하고 아주 가까이 문화예술교육이 들어서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대안적인

문화예술교육, 예술교육 공간 자체를 만들어보면……. 그리고 그것은 독자적인 자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고,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바우하우스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기가 한 요소, 강사로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로서 교육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면,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대안공간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경 ▽ 고민이 계속 통하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민경은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들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네트워크가 좋은데 네트워크를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네트워크 하려면 내가 뭘 할 건지 서로 분명해야지, 그래 이걸 누구랑 같이 하고, 이런 게 잡히는 거죠. 모두랑 네트워크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하는 것은 다르게 풀이하셨지만,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가웠고, 제가 발표하면서 매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반성적 평가를 하고 점차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화예술교육의 여러 문제 중에서 참 갑갑한 게, 교육활동만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강사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몇 개월이 됐든, 교육하면 강사비줘서 하게하고, 나머지는 재료비 이런 거니까 쓰면되고. 그런 고민을 한지가 오래 됐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년부터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기반 문화예술교육 협력 사업이 있어요. 교육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것이 중심이고, 저희가 잡은 것은 공간은 아니었고, 동네 정도의 단위에서 그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교육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어요. 아동센터도 있을 거고, 어린이 도서관, 잘 얘기가 통하는 데는 주민센터 이렇게 지역에 공간을 갖고 있는 곳을 포함한 여러 주체들이 이 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자, 라는 방향으로 작년에 했고, 올해 2년차 사업을 할 계획이에요. 고민은 그런거예요. 운영한 것에 대한 지원 말고, 다른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거든요. 올해 지역특성화 하면서 형식상으로 예산 관련된 것 빼놓고 지역에서 세팅할 수 있게 풀었죠. 인천은 뾰족한 수를 못 찾아서 작년에 하던 식으로 하는데요, 그 제한이 일자리 때문이었어요.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교육하면 강사일자리 이렇게 해서 일자리 몇 개를 채워야 되는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고민을 이 사업에 딱 적용하기, 조건적으로 안 되는 것도 있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이런 지원의 형식을 구상을 못했는데요. 내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거예요. 그게 이전의 거점, 거점 네트워크 이런 게 있었는데, 거점이라는 형식을 띄울 수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런데 초점을 둔 이런 걸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중에 저희는 이 실험을 하고 있고요. 공간 지원은 아주 소규모로 했었고, 다른데도 찾아보면 지금 말씀하신 공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시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올해 너무 늦지 않게 9월 이 정도에 마무리 안을 낼 수 있게, 연속 포럼 이런 걸 해서 내년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겠다, 이거 하려면 일자리 이런 것도 좀 풀어야 가능하거든요. 많은 양의 일 자리를 만들면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수를 쓰기도 해야 되겠죠. 저희 올해의 지원 관련해서는 그걸 중점적으로 기존에 했던 경험도 있고 해서 그런 식의 지원들을 짜는 게 제가 좀 더 과감하게 실천하자 이려면, 자기 확신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논의를 좀 깊게 해야 되잖아요. 광역센터 협의회의 이런 것도 추진하고, 그 안에서 주제 잡아가지고



지금 세 개 센터가 하는 것도 그런 신호라고 보는데, 주제를 가진 포럼이나 테이블 이런 것을 같이 구성하면 모든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좀 협의해서 몇 차례, 혹은 대외적으로 토론회를 많이 해봐야 할 거 아니니까, 예산도 많이 안 들거고요. 자기 내공과 내용을 채워가는 그런 테이블, 추진합시다 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 어려운 자리...(웃음)

김인규 ▶ 잘 몰라서...제가 여쭙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학교에서 방과후 예술강사 말고,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특성화 시켜가지고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뭔가 결합했던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와서, 교육부가 와서.

민경은 ▶ (??) 창의적 체험 활동을, 어떻게 교사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지에 관련한 고민 때문에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워크숍 같은 게 조금 있었어요.

김인규 ▶ 직접 들어가서 아이들 지도했던 건가요?

민경은 ▶ 그 워크숍 통해서 교사들과 같이 아이들 지도까지 진행해 볼 수 있었습니다.

- 김인규** ▶ 그걸 그림 교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한건가요?
- 민경은** ▶ 교사 교육에서 아이들 교육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됐었죠.
- 김인규** ▶ 저희 같은 경우는 연수 그런 건 있고, 그거 말고 다른 사례를 말씀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자기반 학생들하고 할 수 있는 예술교육활동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는 워크숍을 한 학기 쪽 하고요. 학교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하고 필요할 때는 외부 강사를 불러오기도 하고 그러죠.
- 민경은** ▶ 그런 경우에 저희 같은 경우에 연결이, 지역에 있는 청소는 수련관이 매개 역할을 해줬었어요. 청소년 수련관이 지역 사회 공동체(??) 했고,
- 김인규** ▶ 학교가 중심이 돼서 진행되는 경우는요?
- 민경은** ▶ 그런 경우는 학교가 혁신 학교가 됐을 경우에, 그때 요구가 왔던 거죠. 전교생 600명을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가지고 같이 만나서 진행이 돼서 했던 거죠.
- 김인규** ▶ 그러면 들어가신 입장에서는 프로그램만 관심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만 관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 민경은** ▶ 아, 저희가 들어간 입장에서요?
- 김인규** ▶ 네
- 민경은** ▶ 아니죠, 학교가 지역사회랑, 외부에 있는 저희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고요,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어떻게 녹아서 그 이후에 어떻게 안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시작했던 거죠.
- 김인규** ▶ 결과 보고서도 하나요?
- 민경은** ▶ 네, 결과에 대한 보고 작업도 하고 있는데, 그게 진행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부딪힘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빨리
- 김인규** ▶ 보고는 어떻게 활용이 되요?
- 민경은** ▶ 결과 보고 책자를 같이 기획을 하는데, 행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걸려 있어요.
- 김인규** ▶ 학교랑 같이 작업하는
- 민경은** ▶ 네 같이 작업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인 부분이 걸려서, 결국에는 학교 측에서 마무리를 하고, 인재를 해서 교육청 쪽에 배부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규 ▶ 저는 보고에 어떤 부분이 더 담겨져야 한다는 생각이 드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더 풀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보고가 어떻게 담겨지냐면, 어떻게 아이들이 활동했는가를 보고에 다 담죠. 그것만 담고 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기관 아니에요, 학교라는 기관하고, 다른 기관이 만나서 어떻게 행정적인 분배를 했는지, 책임의 문제가 어떻게 이뤄졌고, 행정적 역할 분담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담당했던 책임의 부분, 학교가 담당했던 책임의 부분, 이 지구에서의, 이 지구의 책임의 문제, 지도교사는 누구, 그 다음에 강사는 누구, 그 래가지고 이 두 사람의 관계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대개 보고서에 담겨지지 않잖아요. 이런 거 안 담겨지고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했는가만 담겨지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하실 때, 꼼꼼이 제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이 보고서에 담겨진다면 참으로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우리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이 담겨져야 한다,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은 어느 예산을 이용했고, 교육청 예산인지, 어느 예산인지, 예산이 어떻게 분배 되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에 다 담아준다면, 그것이 하나의 정책적 사례가 되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학교 입장에서도 막상 뭘 한다고 해도, 이걸 어떤 근거로 할 수 있지? 정책적 근거나 법적 근거나 이런 거 따지다보면 선생님들이 나는 그거 못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생각하면서 그 부분을 사업 할 때는 애들 가르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하고, 애들 결과보고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이 진행되어 왔던 행정 과정 자체에 대한 보고를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성과로 누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하나 ▶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하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2차 포럼을 준비하고, 이번에 얘기할 때는 단순히 불만을 토로하고, 중앙단위의 정책 기관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지 말고, 대안을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그 대안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스로 그런 상상력이 너무 없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되고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것은 단체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자발성이나 주체성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상실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하면 제일 많이 전화를, 그러니까 공고가 나가고 나서 제일 많이 오는 문의 같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단순히 사업의 방향이나 내용보다는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 안에서 사업을 기획하시고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어느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단순히 현장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계속 많이 나왔었던, 아까 민경은 선생님도 얘기하셨던, 이런 지원 정책이 아마 현장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센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이 개별 센터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실무자들이랑 이야기를 하다보면, 안 그런 곳도 있지만 지역의 대부분의 지원센터들은 자발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중앙에서 하는 기획을 받아서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조금 되게 황당하기도 하고……. 문화예술교육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고요,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제안이나, 그런 것을 끊임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지금 동네에서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공간을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보고 있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조금씩 돈을 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아코디언을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평소에 배우기 힘든 콘트라베이스를 거기서 배우기도 하고, 친구 중에 일본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사람을 강사로 해가지고 소규모 단위로 수업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하는,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것들이, 지금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지만, 자발적인 학습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도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서는 되게 특이하고 특수한 상황인건 분명한데, 오히려 우리 같은 센터에서 그런 사례들을, 지원제도 밖에서 이뤄지고 있는 민간 단위에서 이뤄지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발굴해서 좋은 사례들을 알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지원사업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안되는 게 너무 많고, 안하던 것들은 쉽게 시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역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알리는 작업들을 조금 하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장재환 ▶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문화재단 예술교육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재환이라고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학교밖에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야 쪽에 민간분야나 공공분야에서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영역은 어느 정도 나름 활동 영역이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교육이 학교 안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지금 현장의 장애요소도 많고, 장벽이 높다는 생각을 경험에 의해서 조금 느끼고 있어서, 아까



김인규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전에 2008년부터 학교 대상으로 동아리 대상으로 저명한 예술가들을 프로젝트 그룹을 형성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도 진행해 봤었고, 2011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 일반학급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 단체를 선정을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정규교육시간 중에 들어가서 교육하는 사업도 올해까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교과영역과 비교과영역에 있어서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워낙,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좀 죄송스럽지만, 폐쇄적인 느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놓고 싶지 않은 인식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다시 학교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지금 2009년 교육과정 개정된 게 학교마다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니깐, 보이는 내용은 장벽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보면 아이들한테 주어질 수 있는 교육기회나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는 여건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죠. 변경된 제도나 교육과정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 참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비교과 영역에 있어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아니면 이런 특별활동 같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더 명확해 질 수 있는 역할 분담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그런 부분이 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까지 다 연결이 돼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학교 바깥에서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바르게 정립이 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작년 12월에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이 되면서 문화예술계도 그런 게 굉장히

장히 화두로 지금 많이들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협동조합이라는, 각 지역단위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을 해서 기존에 학교에 들어가 있는 예술강사나 학교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공교육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문화예술교육 단체, 문화예술교육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협의의 장을 지역문화재단이나 지역센터에서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져주셔서 그게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이 되지 않더라도, 협의체나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규석 ▶ 저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왔고요, 이규석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많이 공감되는 말씀들 들은 것 같고, 중앙정부 문화예술교육 정책과의 관계성에서는 지역성과 자발성을 좀 적극적으로, 지역성과 자발성을 문화예술교육 정책 속에서 끌어낼 수 있게끔 어떤 능동적인 노력들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그동안 지나치게 도구적인 관점이나 계몽적인 관점으로 일관해 오기도 했고, 또 지나치게 지식적이지 않습니까, 독서를 많이 해라, 이런 수준이 아니라, 독서할 책을 지정해서 모든 사람에게 읽히는 방식인거죠. 어느 정도 그런 중앙 정부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획일화된 관점을 지역의 자발적인 관점으로 좀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문화예술교육정책이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된 시스템, 체계, 그리고 마을공동체 관련된 정책체계 이걸 같이 묶어 낼 수 있는 통섭적인 정책 목표들을 좀 만들어 내야 지역

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개별화된 영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생학습, 마을 공동체와 하나의 사이에 통섭적인 정책목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부분은 정말 다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적인 바램은 일종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 부분에서는 노사정 모델 같은 혁신 모델이 하나 나와 졌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바램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경기도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경기도의 경우라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일종의 혁신 협의체, 교육청과 경기문화재단 광역센터, 그리고 이제 학교운영위원회 포함해서, 학교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학생주체를 포함해서 학부모주체들, 학교문화예술교육 자체를 학교문화예술 사업을 개선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학교문화예술교육 자체에 대한 혁신 모델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뭔가 좀 혁신모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가능성이 남아 있는 어떤 지역부터 우리가 좀 에너지를 모아내고 같이 공동으로 어떤 캠페인적인 대응을 해보는 것, 또 그런 혁신 모델이 다른 지역에도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사업의 내용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생산적인 충격효과를 줄 수 있게끔, 혁신모델 만드는 쪽으로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게 개인적인 바램 차원이고요. 그리고 제안 말씀 해주신 것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해서는 이제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간 교류도 굉장히 중요하다, 매개교류에 대한 필요성 말씀해주셨는데, 기존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프로젝트 베이스로만 지금 사업이 짜여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간 혹은 프로젝트 수행 주체 간을 매개 연계해 줄 수 있는 사업모델들을 광역센터들이 어느 정도 의지를 모아내면 적절하게 지원사업 구조에서의 공백들 새로운 지원사업 모델들을 창안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바램도 있고요. 연관되는 얘기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지역차원의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지금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데, 세 차례로 끝내지 말고 이걸 조금 정례화 시키거나, 상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다음 달까지 세 차례 이 포럼 치르면서 이후에 조금 서 상설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모델로 발전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형주 ▶ 이번 연속 포럼이 문화예술교육을 둘러싼 하나의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논의들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섞으면서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매개교류에 대한 필요성

#03

인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일시 : 2013년 3월 20일 (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아카이브

- 기초강연
- 발제1
 -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론
 - 강원제 (00은대학연구소 1소장)
- 발제2
 -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 문화예술교육을 지우다.
 - 드라마고 (생활문화협동조합 퍼포먼스 반지하)
 - 고영직(문학평론가)
 - 이상환(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 지정토론1
- 지정토론2

#0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론

들어가며

시장에 내 삶이 압도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대부분이 시장을 통해서 온 것이니까요. 먹고 사는 데는 돈이 필요하고 시장은 그때마다 돈을 요구합니다. 지금도 난 시장에 접속해있고, 내가 원하는 그렇지 않은 관계없이 시장은 내게 말 걸어옵니다. 돈 필요하냐? 니가 관심가질 제품이 나왔는데! 강의료는 준다든? 내 몸과 내 삶은 시장주의자들의 영토가 되어있습니다. 상상력, 창의성, 미래, 혁신, 지속가능성, 네트워크 등등 인류의 오래된 지적 유산들 역시 시장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입니다. 워렌버핏, 빌게이츠, 스티브잡스는 창의성이 있어서 성공했고, 그래서 널리 칭송받고, 배우려 하고, 가진 것 없는 이들의 창의성은 있어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어떤 이유로든 시장을 위해 일할 사람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 시장에서 구매할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일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고, 굶어 죽지는 않도록 하고, 불안으로 병들지 않도록 하고 전쟁이 나면 안 되고.....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관계없이 '복지' 를 말하지요. 교육도 복지고, 농업도 복지고, 주민자치도 복지고, 문화예술도 복지고, 복지는 원래 복지입니다. 복지하자고 하면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그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세상에서, 시장으로 인해 병든 이들의 수발을 들며 죽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사'는 돈 안 되는, '쓸데없는 비물질노동' 하느라 굶어 죽거나, '아지태이션' 을 멋지게 하기 때문에, 늘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작가를 위한 일자리복지이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냥 놔두면 사고 칠지 모를, 아픈 아이들을 위한 복지이거나 방과 후나 주말에 갈 데 없거나 돌볼 사람 없는, 없는 집 아이들을 위한 복지가 되었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의 기획은 삶의 전방위에서 펼쳐집니다. 시민들의 삶을 시장을 통해 영위토록 하면서 '국가' 라는 기관을 시장을 위해 일할 시민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장치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제와 개선에 대해 열심히 논해도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떠들어서 변화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안 될 때쯤이면 이상하게 하트는 빠지고 슬쩍 시장의 기획이 실행되는 정책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시골벽적 성토하고 난 뒤에 더욱 허무감이 드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모두가 시장주의자들의 기획에 원하지 않았지만 진행자가 되었다는 것. 중앙정부도, 정책시행기관도, 시도지원기관도, 현장 활동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당사자이면서도 어떤 의견도 내보지 않은 제도와 전달체계에 의해 관리되면서, 또한 주어진 매뉴얼을 적용하면서 스스로 상급진행자로서의 권위를 앞세운 통제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관리체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괜히 시끄럽고 삐걱거리는 스피커는 다른 스피커로 언제든 바꿔버리면 그만인 도구적 관리체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체계에 있는 모두가 불안하고 피곤하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전망을 그려봄에 있어 답답함부터 드니, 닥치고 반성부터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도 반성이 깊어지면 병이 되니 다음 기회에 다시 하고, 지금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같이 고민할 만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지요.

1. 문화예술교육의 영토

고래로부터 우리의 삶은 '자연', '과학', '인간', 그리고 '교육'의 복잡다단한 관계로 이뤄져 왔습니다. 여기서 자연은 본성으로서의 Nature와 물질로서의 Physis이고, 과학은 예술로서의 Ars와 기술로서의 Techne이며, 인간은 땅의 생명으로서의 Humus와 소통하는 존재인 Demos, 그리고 공유하는 Populus이며, 교육은 끌어내는 Eduke와 자유롭게 실천하는 Praxis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이 예술과 기술을 통한 자연과의 관계 맺음은 문화의 어원인 농사짓는 행위로서의 Cultura와 문명의 어원인 시민들의 삶이 이뤄지는 장소로서의 Civitas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러한 각각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문화', '예술', 그리고 '교육'을 하나의 측면만 바라보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정책을 논하면서는, 무의식적으로 높은 성으로 둘러쳐져 있었던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공간이었던 'Polis', 즉 'Policy'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 밖에서는 아무리 떠들어대야 안 들릴 텐데 말이지요. 애초부터 Polis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교육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활동가들의 전략은 시장의 기관이 된 정책Policy에 기대기보다는, 본성과 물질이 겹쳐진 자연에 발 딛고, 소통하는 인간으로서 민주주의의 힘을 믿으며, 공유하는 People로서 예술과 기술을 함께 익히고 나누며, 그러한 삶의 지속성을 위해 교육하고 실천해가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데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문화예술교육이 시장에 의해 떠밀려난 영토이며, 지금보다 나은 모두의 삶을 위한 장소일 것입니다.

2. 지역과 문화예술교육

엄밀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분류해보자면 '지역'은 한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 때문에 규정되는 장소의 의미가 강하고, '마을'이라고 하면 그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관계를 명명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강합니다.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의한 관련 개념들도 그 점에 기대어 있습니다.

- 마을 :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 마을공동체 :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
- 마을공동체 만들기 :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즉 공유하는 게 있는 주민들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 일어난 곳이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산림지역처럼 주민이 없어도, 공단지역처럼 그 장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게 없어도, 군사지역처럼 그 구성원들의 관계가 상호 대등하지 않아도, 또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없는 곳이라도 '지역'이라고는 불릴 수 있지만, 마을이라고는 불리지는 않는 거지요. 바로 이곳이 문화예술교육이 다시 찾아가야 할 영토이며, 이를 위한 전략은 지역을 마



으로 바뀌는 것. '지속가능한 배움과 가르침의 미적 공동되기'입니다. 가슴과 손을 함께 움직여 제작하는 공방을 기반으로, 자전거를 타면서 텃밭을 가꾸고, 돈으로만 거래되는 마트가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거래되는 장터를 열면서, 은유와 상징체계를 익히고 그 힘을 믿으면서, 역사적 장소를 탐방하러 멀리 가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역사적 장소를 찾아내고 이야기를 만들고,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서로에게 배우며, 마을에서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켜 보는 노력의 과정과 관계가 발휘하는 빈 마음과 몰입의 즐거움이 있는 미적 경험을 하면서, 그렇게 마을에서의 실천을 멀리 있는 다른 마을과 교류하면서 더 크게 공유하는 걸 문화예술적으로 해낼 줄 아는 일꾼으로 함께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경험이 되는 내용이 완성에 다다를 때 우리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럴 때 그것은 내면적으로 완성되고, 경험 전체의 흐름 속에서 다른 경험과 구별된다. 한 작품이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완결되고,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게임이 진행된다. 식사를 하거나, 체스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정치적인 캠페인에 참여하는 등의 상황은 하나의 정지가 아니라 하나의 완성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의 전체이며, 나름의 개별적인 특성과 자기 충족성을 지닌다. 이것이 경험인 것이다.” (존 듀이)

이러한 과정이 문화예술적이고 미적이어야 할 이유는 공통감에 호소하는 문화예술의 보편타당성은 이해관계가 아닌 소통관계에 기반을 두기 때문입니다.



3.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실천 사례 : OO은대학

OO은대학에서 청년들은 책이나 인터넷을 조금만 뒤져도 나오는 뽀뽀한 정보를 익히는 게 아니라 지금 순간 각자가 믿고 서있는 그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삶의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 경험합니다. OO은대학에서는 친척 외에 친한 어른이라고 없는 청년들이 지역의 어른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배우고, 인터뷰잡지를 만듭니다.

모이세 봉어빵 아저씨는 단팥, 슈크림, 매콤이 삼 종 세트를 판매하시는데 그중 슈크림을 가장 좋아하는 달콤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돌아온 싱글이십니다. 전에는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다가 가게를 얻어 봉어빵 장사를 시작하셨답니다. 처음에는 봉어빵이 자꾸 망가져서 팔지 못할 정도였지만 지금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답니다. 아저씨는 봉어빵을 구울 때 너무 행복할 정도로 자신의 일을 사랑하십니다. 소개합니다. 온수리대학의 박형섭 교수님이십니다.

현대이발소 할아버지는 50년 전 배가 고파서 이발사가 되셨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그것도 역시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면 매우 귀찮아하십니다. 니미 귀찮게. 욕은 하시지만 대담은 다 해주십니다. 할아버지 무슨 머리를 제일 잘 자르세요. 하면 난 다 잘라. 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스포츠헤어를 가장 잘 자른다고 귀땀을 해주십니다. 이곳이 유길희 교수님이 50년 간 땀으로 일귀 오신 현대이발소 온수리대학의 제1캠퍼스입니다.



예술이는 중1이지만 이곳에 와서는 대학생입니다. 처음에 예술이는 온수리에 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화가 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몰래 신청했기 때문이죠. 그래도 예술이는 엄마 말을 순순히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예술이는 한시라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지 않으면 불안하다고 합니다. 아무도 예술이에게 이어폰을 빼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술이는 이곳에서 대학생이기 때문이죠. 그런 예술이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유형원 할머니를 만날 때는 이어폰을 끼지 않았습니다. 여름 캠프 참가자였던 예술이는 아쉽게도 마지막 날 할머니를 만나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이는 지난 12월 겨울 캠프의 첫 신청자가 되어서 유형원 교수님을 다시 만나 지난여름 전하지 못한 교수 위촉장과 자신이 만든 인터뷰북을 전합니다.

붕어빵 선생님, 이발소 캠퍼스, 중1 대학생 모두 온수리대학 캠프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OO은대학은 이렇게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우는' 마을배움터를 만듭니다.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운다' 너무나 쉬워 보이는 이 말을 현장에서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술래'이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술래는 술래학과를 통해 양성됩니다. 저는 사실 야매 수강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수강해보 적이 없고 여기저기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이곳에서 배운 단어는 하나입니다. '긍정'. 늘 '수우미양가'의 '양'만 받던 나의 그림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그림이 됩니다. 나의 보잘 것 없던 이야기가 훌륭한 강기가 됩니다. '누구나 가르친다' 이 말은 누가 가진 사소한 재능이라도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저에게 길러주었습니다.



고정숙 할머니를 발견하게 된 것도 그 긍정 덕분이었습니다. 너무 더웠던 지난 8월, 너무 거절을 당해 이제 더 이상 동네에서 교수님 찾는 일 따윈 하지 말아야지 좌절했던 날 고정숙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늘에서 쉬던 할머니는 도라지는 묵으면 약이 된다는데 사람은 묵으면 바보가 된다고 바보 할머니들하고 말하기 답답하지? 하시며 환희 웃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에게 고정숙 할머니는 고정숙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OO은대학연구소 온수리대학 술래 도리의 글 중에서.....)

OO은대학에서는 대형쇼핑몰의 점원들과 소비자의 권리로만 상대했던 청년들이 시장의 상인들을 만나 말을 트고 축제를 벌이고, 오래 알아온 친구는 있어도 맘 트고 지지해주는 동료는 없는 청년들이 또래 청년을 만나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축복하면서 협업을 합니다. OO은대학에서는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배우고 익히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행하고 반성하는 전 과정을 겪는 '경험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라도 온전히 자신들의 경험이 되어 기쁨이 배가 되고, 실패하더라도 학습과 활동의 과정 전체를 사유하며 반성할 수 있게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갖습니다. 존듀이의 말처럼 "인간과 환경 간의 불균형을 조화로 이행하는 순간이며 가장 강렬하게 살아있는 순간"을 청년들은 OO은대학을 통해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 문화예술적 경험을 함께 한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말이지요. 수많은 멋진 사람들의 조언과, 격려와 도움을 받으며 쇼핑몰 앞에서, 그리고 전통시장 안에서 지역 축제도 열었는데요. 우리의 수천 차례의 맨붕과 삽질 끝에 맺어진 결실을 즐기며 행복해하는 지구인들을 지켜보는 건 참 이상하고도 신나는 일이었어요. '이런 축제 또 열어주세요!' 하며 환하게 미소 짓던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가 해온 그 쓸데없어 보이던 삽질들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

다니.....어렵기만 했던 협업의 과정이 모두 헛되지 않은 일이었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엄청 이상한 지도도 만들고, 잡지도 만들었어요.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절대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 프로페셔널하다고 하긴 어려운 우리가 지도와 잡지 같은 콘텐츠를 만들어 냈다는 게 참 이상하고, 그 배경이 사실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었던 사실도 참 이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특별했어!' 라고 지금은 생각하고요! 이 중에 지도 애길 살짝 하고 싶어요! 최근에 끝이 난 원종종합시장은대학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야기지도를 만드는 팀에 있었는데요. 지도를 만들기 위해 시장과 동네를 쏘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거 완전 미친 별이네...쪼그맣고 평범한 시장, 평범한 동네에 보물이 왜 이렇게 많아!!'

30년 된 노점상 할머니가 계시고, 매일 매일 구오오오오오오 하는 비행기의 연주를 들을 수 있고, 친구를 구하는 길고양이 백 마리가 산책 다니고,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도 새까맣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약재 하수오를 만날 수 있는 이 동네는 진짜 보물천국이었습니다. 그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의 동네도, 그리고 여러분의 동네도, 보물로 가득가득 차있겠죠?

(부평은창조대학 술래 라밍의 글 중에서.....)

개인적 이야기로 돌아오며.....

나는 2000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2년 정도 일을 한 것 외에는 서울 영등포의 하자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청소년직업체험센터이자 청년 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터인 하자센터를 그

만두게 되기까지는 두 개의 장면이 겹쳐집니다. 하나는 '콩세알N'이라는 청년 사회적 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면서였습니다. 경기도 울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이었었는데, 이 청년들이 처하게 될 어려움이 뻔히 보여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 하자센터의 스텝으로 안정적 월급을 받는 입장에 있는 나의 이야기는 어느 사이인가 개인적 욕망을 권위에 의지해 강요하는 것이거나, 지금 그들이 겪는 현장의 절실함은 잘 모르고 잘난체하는 이야기로만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나는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보려다 결국 지쳐 떠나갔지요. 두 번째는 제주도 가시리에서 생태건축 장인과 청년들이 <우리 동네 건축가 프로젝트>로 생태건축을 할 때였습니다. 거의 두 달 간을 같이 먹고 지내며 집을 지어갔지요. 한 달 쯤 되었을 때 장인과 청년들의 소통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까지 집을 완성해야 한다는 게 분명한 장인은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집은 지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 자연스럽게 집짓는 기술이 몸에 익게 된다는 입장이었고, 청년들은 집이 어떻게 지어지게 되는지 그 원리와 기술을 장인과 소통하면서 몸으로 익혀야 제대로 된 노동으로 집을 지을 수 있지 않겠냐는 입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살기 좋은 집을 기간 내 만들어가고자 하는 목표는 같았지만, 장인과 청년들은 서로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경험 많은 장인은 청년들의 이야기가 가당치 않았고, 경험 없는 청년들은 생태건축을 한다면 '타르'를 재료로 사용하는 장인의 이야기가 미덥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차저차 해서 집은 지어졌지만, 그들은 다시 만나지 못 할 사이가 되어버렸지요. 저는 이 두 개의 장면에서 소통되지 않는 욕망, 위임되지 않는 욕망, 신뢰받지 않는 욕망은 더 이상 어떤 관계도 일도 만들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자를 그만두면서 가졌던 욕망, 즉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실천을 문화예술적으로 해갈 청년실행그룹들이 배꿀지 않으면서 신나게 일해 가는 판을 만들고 싶다는 욕망은

나와 함께 할 청년들의 욕망과 소통되고 같은 그라운드에 발 딛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하는 OO은대학을 만났습니다. 일 년쯤 되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내가 OO에서 하고 싶었던 일과 유사한 이런 저런 일자리 제안이 있었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건 조직이라는 시스템에서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으로 월급을 받는 순간, 나와는 다른 위치에서 대상이 되어버리는 청년들과 서로의 욕망을 소통하고 공유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아직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OO에는 이런 감각을 가진 제 또래의 2소장 휘와 3소장 조반장이 있고, 위 세대와 함께 일하고 같이 책임지는 감각과 태도를 가진 청년술래들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과 제 또래들이 함께 같은 그라운드에 발 딛고 배고프지 않을 플레이를 즐겁게 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영토에서 말입니다.

배고프지 않을 플레이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 및 개선방안

1. 지역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 재구성 방향

1) 교육 자치시대와 더불어 문화교육, 문화복지 자치시대로의 패러다임 전환

지방자치의 핵심적 운영원리는 교육, 문화, 복지영역을 지자체 고유사무로 재정립하는 것
사회경제적 생존권으로서 노동권이 존재하듯 문화적 생존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권리(문화교육 관점에서 공교육 및 평생교육에 관한 권리)는 구체적 삶의 현장인 지역단
위에서 실현되어야 함

2) 중앙정부 주도의 단선적 문화예술교육 전달, 추진체계 정비

지역의 자율성 및 차별성에 근거한 거버넌스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마련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운영 방식 관련 법, 제도 개편

3)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정책적 불균형 해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재구조화
사회 '계층' 관점에서 탈피 '지역' 사회 맥락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 실행체계 구축
공교육 및 평생교육이 지역단위에서 통섭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정책관점으로 전환

4) 단위사업 중심의 분절적, 휘발성 지원제도의 개선

현행 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는 단년도 회계주의 원칙에 따른 프로젝트 기반 지원제도가
고착화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참여구조의 분절성이 심화되고 사업성과가 지역사회에 축
적되지 못하고 있음
중앙 및 지역간 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에 기초, 문화예술교육단체 및 파트너십 구
축을 중심으로 한 다년간 지원제도로 개선 필요

2. 지역문화예술교육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지역분권, 자율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주체로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위상 재정립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제도화된 지난 10여 년간, 문화예술교육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
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며 강력한 중앙중심체제로 운영되어 왔음
중앙정부 주도의 규격화된 정책사업을 지역별로 균등하게 할당하는 공급자 중심의 정
책관점으로는 지역, 계층별로 다변화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수요를 섬세하게 담아
낼 수 없는 상황
정책 도입기를 경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수요가 질적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지역분권, 자율형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재의 방식을,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등의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함

요컨대,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핵심적 운영주체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기존 '중앙정부 지정 및 기간제 운영' 방식에서 '지방정부 설립 및 중앙정부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임

현행	변경
<p>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p> <p>.....(중략)....</p> <p>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p> <p>.....(중략).....</p>	<p>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p> <p>.....(중략)....</p> <p>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지원할 수 있다.</p> <p>.....(중략).....</p>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자율성과 차별성이 구조적 차원에서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수요에 따라 적정 수준의 광역,기초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함.

분권적,협력적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정책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교육 정책목표와 방향제시, 정책평가 및 조정, 지역간 문화예술교육 교류와 협력 기능 중심으로 역할을 재정비하되, 기존 단위사업 중심의 진흥원 직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광역단위 문화예술교육 정책지원 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반면, 광역센터는 지역단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기획 및 지원, 연구조사, 파트너쉽 구축 중심의 실행기능, 기초센터는 거점형 문화예술교육 실행주체로서 역할 분담이 가능할 것임

추진체계 정비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자주적 지역문화예술교육재정 확보 방안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부분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방식에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운영에 있어서도 국비 투입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방재정이 종속되어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존의 '교육세'를 '교육문화세'로 변경할 경우 현행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재원이 '국비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통합된 '지방문화예술교육재정'으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국세에 해당되는 '교육문화세'와 연동된 '지방교육문화세'를 지역의 자주적 문화예술교육재정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자주적 지역문화예술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는 별도로, 현재와 같은 단위사업별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을 포괄적 문화예술교육 재정교부 방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단위에서 통합적 사업·예산 기획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2) 통섭적, 거버넌스형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성

앞서 제시한 내용이 중앙과 지역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동시에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역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9조는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설치 근거와 함께 동 협의회의 주된 기능으로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별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감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연2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효성 있는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서 기능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 3차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전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아카이브 · 공동주최: 경기/서울/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연대 · 주관: 한국문화재단



하기 어려운 구조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별도로 실무위원회 설치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내 공공·민간영역 문화예술교육 주체들 상호간 실행력있는 정책협의 채널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강화해야 함

특히, 실무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는 거버넌스의 운영원리와 함께 공교육, 문화복지, 공공예술, 문화예술교육, 평생교육 등의 분야가 통섭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포함시켜야 할 것임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관련 사항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지자체별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의 제·개정 작업과 연동되어야 할 사안임

3)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충분성 확보

제도화 시점부터 문화예술교육정책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이원적 구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예산액 792억원 기준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약 580억원(73%),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약 168억원(21%)의 비중으로 심각한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580억 중 500억원이 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임

그간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이 학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양적 팽창에 치

중해온 결과, 학교 예술강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는 한편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다양성과 내실화 측면에서도 위기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과목표가 계량화된 파견강사, 수혜학교, 수혜학생의 규모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는 까닭에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절대액수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비율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전체학교의 22.5%, 전체학생의 3% 내외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음

공급자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초·중·고 학교 구성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8개 문화예술 분야의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구조는 교급별 생애주기의 연속성과 무관하게 선택적이고 분절적인 양상으로 전개되어 오고 있음

본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학교·교사와의 파트너십 부재, 학교공간의 자발적·주도적 동기유발의 미흡은 여전히 정책적 딜레마로 남겨져 있음.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혁신을 위해서는 학교·교육청-문화예술교육주체-학부모·지역사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위원회 모델에 준하는 혁신 협의체를 통한 사회적 합의구조를 고려해보아야 함.

학교 예술강사의 처우 문제는 학교교사·예술강사간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고민되어야 하며, 장르별 예술강사 파견 일변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방식의 다변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책 범위를 현재 학교 구성원을 포함한 미취학 유아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유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정책관점 등을 통해 보편적 학교문화예술교육 단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그간의 정책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지역' 사회 맥락이 도외시되

고 지나치게 사회 계층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음. 물론 최근에 와서 초창기 소외계층 대상의 한정성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연결성보다는 계층중심적 접근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상황임

사실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계층중심 사업추진 방식의 한계는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교육 재정구조상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예술교육 재정이 불충분한 것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지역단위에서 시행되고 있는 문화복지, 평생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들이 수요자 관점에서는 내용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까닭에 상호간 중복성과 불충분성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임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이 충분성을 확보해나가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범위에 위치한 거점공간과 민간 파트너십을 정책실행의 중심주체로 설정하고 평생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영역의 지역내 통섭적 지원 및 실행체계를 구성해야 함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조를 이러한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할 수도 있을 것임)

4)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방식 개선

2010년 이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점진적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이관되고 있으나, 지원방식은 예술강사 파견지원, 프로젝트 중심의 공모지원 일변도로 추진되고 있음 특히, 1년 단위의 프로젝트형 공모지원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추진 과정, 교육효과 측면의 분절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사업의 성과가 지역사회에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지원방식을 프로젝트 중심에서 문화예술교육단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다년간 지원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중기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사업실행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적·물적자원의 재생산 구조를 뒷받침해줄 필요가 있음 단체 중심의 다년간 지원제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간 3년 혹은 5년 단위의 중기 문화예술교육재정 협약을 근간으로 당해 연도 실행예산의 다소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중기적 관점에서 사업 및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보아야 할 것임

문화예술교육을 지우다

1. 들여다보기 1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쪼뼛한 문화예술교육

▶ 2012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기반시설 협력사업

2012년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사업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 있었다. 지금은 육아휴직에 들어간 장문정 실무자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과 함께 논의하고 진행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쪼뼛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 활동의 현장강의를 한 번 맡았고, 자료집의 추천사를 쓰면서 행복해졌다.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이 나의 마음과 이웃된 이들의 활동을 가로 막고 있던 몇 가지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고 있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자료집에 등장하는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고백을 들어보자.
(□문단의 헤드라인은 필자의 의견이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문화예술교육을 한 문장으로 정의내리라면 아직도 버벅거린다. 하지만 그것은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의 정의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오히려 정의를 내려 버리는 순간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할까?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은 수많은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다르지만 같은 모습으로 실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쪼뼛한 문화예술교육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브라질의 유명한 한 교육학자의 글을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는 브라질에서 문해 교육이라는 화두를 던지 사람으로 억눌린 자들의 교육을 진행했던 프레이리(Paulo Freire)였다. 그가 보는 문해 교육은 단순히 글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 글자 속에 있는 관계와 그 글자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문해 교육이라고 했다.

문화예술교육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정의를 아는 것은 의미 없는 작업이다. 그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단어 속에 얽히고설켜있는 관계를 발견하고 그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일상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예술교육의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쪼뼛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과 함께 했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의 놀이는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었고 살아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었던 작업이었다.

김지웅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지역교사)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탐구하고 싶다.

생활은 사업화 되었고, 사업들은 우리의 공동생활을 소외시켜왔다.

3년차인데, 해마다 느낌이 다르다. 점점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바빠진다. 사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하는 것인데, 프로그램을 너무 프로그램화 시켰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분절되지 않았는가. 지역아동센터는 결국 큰 가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가정에서 엄마들이 단기적이고 분절적으로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 사업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던 것 같다. 이것에 참여하기전에는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참여하면 아이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현대, 이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이런 프로그램 해요' 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 이랑 이렇게 생활해요.' 가 자랑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체성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임정숙(간석으라차차지역아동센터 지역교사)

우리는 각기 다른 신체와 시간과 경험을 지닌 '나들'의 공동이다.

한 개인은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없고, 그는 그의 삶에 자신만을 동원할 수 있다.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이런 단독된 자들이 단독된 자들과 공존하는 일상이다.

파랑새는 바로 내 안에 존재한다는 명언을 다시 한 번 되새겨야 할 때인 듯하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역아동센터라는 공간은 총체적 모순과 희망을 품고 있는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공간이다. 그 공간의 모순과 희망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샘들이다. 그 공간 속에서 일어나

는 수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총체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총체적인 접근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기에 더욱 피로하게 된다. 그래서 외부적 힘에 의해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외부적 힘의 분절적 한계로 인해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만다. 결국 문제의 해결은 그 안에 희망도 함께 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일상의 '나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 희망의 싹을 틔우는 도구로써 총체성을 담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은 무엇보다 큰 힘이 될 수 있겠다.

(공동)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고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든다.

교사로부터 시작되는 교육활동의 구상이 교사의 일상이 되고 이웃의 일상과 만나길 기대한다.

■ 지역아동센터 샘들의 제정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 Me=나, 삶을 그리다 : 갈산동도토리학교지역아동센터
2. 상상력 놀이터 : 고토지역아동센터
3. 수군수군 푹푹푹 공예방 : 내일을여는교실지역아동센터
4. 시인등단프로젝트 '사소한 이야기' : 남구지역아동센터
5. 신나는 마을여행 : 간석으라차차지역아동센터
6. 씨앗톡음 : 하늘씨앗지역아동센터.
7. 인천 돌레돌레하자 : 신나는교실지역아동센터
8. 일상의 활동이 문화로, 문화는 예술로 : 구월지역아동센터
9. 전(展)-그 밖의 것들의 드러냄 : 예꿈마을지역아동센터
10. 청소년축제퍼레이드 : 늘푸른교실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쪼쪼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프로그램명은 이 활동을 잘 대변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집약된 곳이다. 빈부격차, 가족해체, 교육 불평등, 지역공동체의 부재 등이 어린 아동들의 성장과 생활에 큰 장애를 형성하고 있어 아이들은 정서적 불안과 학습장애, 다양한 폭력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는 이들의 방과후 생활과 급식, 교과학습과 대안적 교육, 문화체험과 지역 활동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활동은 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일들이거나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임에도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만이 매일 이 아이들과 이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으니 지역아동센터라는 복지센터가 어느 하나의 사회적 사실(social fact)을 인식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저항하거나 구조적인 대안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제도와 사회의 요구에 의해 각 문제별로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표피적으로는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모양을 만들어 왔다.

그동안 지역아동센터에 지원되어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이와 같은 자원과 방편 일 수밖에 없었다. 투여된 외부자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아동들의 치유와 대안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되어졌지만, 프로그램 강사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의 소통과 공동 활동은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고, 프로그램과 강사들은 정형화된 교육을 여러 곳에서 시행하는 방식을 정당화하여 왔다. 아동들의 삶과 생활의 문제를 생산하는 사회적 문제들은 그 프로그램의 안에서 다뤄지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사를 잃었고, 교사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문제해결력을 상실했으며, 프로그램 강사들은 자신의 창조적 작업방식을 포기하고 저소득 시간강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문제들의 직면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 스스로가 선택한 활동과 지역아동센터의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고, 혈액형을 알 수 없는 외부로부터 수혈된 프로그램들이 가져온 부작용을 인식하였으며, 삶의 어려움을 삶의 다양성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아동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삶의 현실을 대면하며 새로운 공동생활을 생산하여 가야 한다는 철학적 경지에 이르고 있다.

발췌)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의 쪼쪼한 문화예술교육’ 추천사
 나로부터 시작되는 문화예술교육
 드라마고(교육운동가, 생활협동조합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이 책은 문화예술교육에 앞서 인간의 삶을 경쟁과 평균으로 인식하는 동시대의 사회에서 가장 외곽으로 밀려난 가난한 아이들과 그의 부모들이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또한, 그 삶의 어려움들을 자신의 삶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이 복잡하고 험겨운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역아동센터와 그곳의 지역교사들이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미국의 가난한 사람들의 인문학과정을 운영중인 얼쇼리스는 ‘가난은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위협 당한다’라고 걱정했다. 이 시대의 가난이란 교육과 의료, 노동과 정서, 문화활동과 사회적 관계 등의 모든 면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활동을 보장 받지 못해 어느 하나의 중대한 위협 앞에 서게 되면 삶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위협받게 되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놓여 있다는 우리나라의 가난 또한 돈이 없으면 대학을 다닐 수 없고, 간병인을 둘 수 없으며, 더 많은 노동시간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



달려야 하며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시간을 누리기 어려운 답답함에 놓여있다. 한 아이는 누구든 그의 부모와 충분한 교감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 어떤 아이가 오늘 새롭게 만난 것에 대한 호기심을 표현하고 떠오른 질문을 던지고 싶지 않을까? 무엇을 스스로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는 성취감과 이에 대한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가난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본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삶에 대한 질문이 허용되지 않는 가족의 형편과 그것을 문 제시하면서도 여전히 사회 평균적인 삶의 방식을 기준으로 필요하다고 보이는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한 사유와 고백을 들려주지 못하고 사회의 평균적 인 삶을 기준으로 하는 왜곡된 프로그램을 서툴 하는 태도들에 둘러싸인 아이들은 삶의 질문을 던질 대 상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어림과 부족함에 의해 그 평균에 도달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스스로 성 장하는 과정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책의 교사들의 고백에도 등장하듯,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보호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부족한 학 습과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아이들의 상당수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학습장애를 겪으며 일부는 일탈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는 현실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여 왔다. 지역아동센터의 그동안의 노력은 아이들에게 큰 위안과 안전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럼에도 아이 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사들의 성취감이 높아지지 않았던 이유는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위협’ 당하게 하 는 사회적 폭력 앞에서 우리교육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족을 분류하고 부분적인 충족을 통해 평균에 가까워지려는 제도복지에 위협 당해 온 것은 아닐까.

인간의 삶은 언제나 통합적인 온전한 하나를 지향한다. 사회가 한 사람을 분야로 종속하려할 때 인간은 소외감을 느낀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교사들도 하나의 통합적 존재이고자 하는 잠재적 욕구를 지 니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일부이던 상당수이던 지역아동센터에 수혈된 수많은 외부지원 프로그램들 은 지역아동센터의 교사와 외부강사, 아이들 모두를 소외시키기도 했다. 교사는 행정일로 바쁘고, 외부 강사는 낯선 환경과 산만한 아이들을 감당해야 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대화와 신뢰의 대상이 누



구인지를 확정짓기 어려웠다. 서로에게 필요한 자원들은 동원되었지만 3자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 고 각자의 의미를 소통하는 통합적인 운영이 아니고서는 지역아동센터의 내면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없 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이와 같은 경험에 대한 반성적 사고도 등장하고 이것에 대한 반면교사를 통 한 샘들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행이라는 설정은 매우 절묘하다.

‘지역아동센터 샘들의 켜켜한 문화예술교육 만들기’의 활동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활동개념의 해석에 대한 집착보다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을 문화와 예술과 교육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와 외부강사에 의존한 교육활동의 아닌 교사 스스로가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천 하고 이를 기록하여 책을 엮은 것은 매우 진보적이면서도 대안적이다. 더구나, 문화예술교육의 뉘앙스 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진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와 욕구를 끌어내고, 그것이 특정한 전 문분야에 의존하는 교육이기보다 아이들과의 교사가 함께 체험과 교감을 나누고 생활의 연장선에서 학 ‘지역아동센터 샘들의 켜켜한 문화예술교육 만들기’의 활동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이라는 활동개념의 해석에 대한 집착보다 지역아동센터의 활동을 문화와 예술과 교육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와 외부강사에 의존한 교육활동의 아닌 교사 스스로가 아이들과 함께 진행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실천 하고 이를 기록하여 책을 엮은 것은 매우 진보적이면서도 대안적이다. 더구나, 문화예술교육의 뉘앙스 를 통해 그동안 잠재되어진 자신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와 욕구를 끌어내고, 그것이 특정한 전 문분야에 의존하는 교육이기보다 아이들과의 교사가 함께 체험과 교감을 나누고 생활의 연장선에서 학 습을 통해 센터생활의 안정과 학습효과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가는 실천의 이야기는 모든 글을 집중 하여 읽을 수 있는 감명을 전해 주었다.

역시나 진정성과 현장성은 깨달음의 원천이고, 동료들간의 평가와 격려는 사는 맛과 느끼게 한다. 지여 아동센터의 교사들이 전해주는 이 대화와 실천의 기록에서 발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스스로 살아가는 삶’인 것 같다. 어떤 삶의 생이 스스로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어도 우린 탄생하고 살아온 인류 다. 타인에 비해 어려운 삶의 조건이나 불편한 시대, 사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삶을 살 수 없으

므로 각자는 자신의 삶을 탐구하고 기록하여 가는 과정을 자신의 인생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는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준비하고 자신의 삶을 통합하여 가며 아이들을 만나갈 때, 아이들 또한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외부강사나 사회제도와의 대화에서도 강조될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공부방운동의 역사를 기반으로 발전된 지역아동센터는 교사와 학생이 온전히 대화할 상대이자 신뢰를 교감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고, 생활에서의 학습을 통해 스스로 삶을 살아갈 힘과 방법을 획득하는 데 있다는 점은 교육운동가이자 아버지인 나의 교육철학과 닮아 있다.

학교교육과 지역아동센터는 서로 보완되어야 하면서도 각기 다르며, 학교교사와 지역교사는 서로 다르더라도 자신의 교육을 사유하고 스스로 실천한다는 점에서 같을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가 수많은 어른들이 '나들' 이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각기 스스로 존중되는 '나들' 이 되길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역교사들의 해석에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이 기록은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아동센터에 기여한 바로서도 의미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의 삶의 기록으로 의미될 것이고, 다음세대의 세상에서도 소중한 마중물로 발굴되길 기대한다.

- 2012년 1월 20일 하루 종일 읽고 1월 21일 새벽 2시에서야 이 글을 맺습니다.

2. 잠깐 들여다보기

'주민이 가꾸는 마을' 에서 '엄마가 만드는 마을동화' 에 이르기까지

나는 2008년 자자체에 '지역민들의 생활인문학' 수업안을 제출하고 탈락한 후 2009년 이후로 스스로 문화예술교육사업에 공모하지 않고 있다. 당시는 인천의 한 동네로 이사하고 그곳에 마을학교 공간을 만들고 지역환경작업과 주민들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도 대부분이 할머니들인 이웃들과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대상화' 하는 것이 될 것 같은 우려가 있었고, 지역 공공예술작업을 통해 좀 더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 일상을 공공 예술화하여 우리의 공동된 환경으로 구성하는 일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른 기관들의 요청으로 문화예술교육활동을 진행하긴 했다. 그중 가장 많이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주민이 가꾸는 마을' 이라는 것인데, 요청기관이 있는 지역의 젊은 주민들(주로 엄마들)이 참여하여 '나' 라는 정체성에 대한 탐구와 '스토리텔링' 에 기반을 둔 다양한 표현을 시도하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를 향한 실천활동을 운영하는 '도시형 통합프로그램' 으로 2007년 이후로 치면 인천 남구를 중심으로 8기에 걸쳐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장르로 구분하자면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보다 '주민교육'이나 '지역활동 교육'에 가깝다. 이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 교육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교육의 본래 취지대로 강사들과 참가자들이 이웃으로 관계되고, 지속적인 지역운동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는 바에 비하면 '원정교육'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고 지금은 그 개별자들의 자발적 활동에 교육의 경험과 의미가 남겨져 있기를 기대할 뿐이다.

단원	학습영역	수업제목	키워드	주제	참가자 활동
오리엔테이션	인문학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문학	인문학의 이해	강의 청취, 메모
인간	나	이름과 문장으로 소개하기	인간 존재	나의 발견과 해석	문장 / 한붓 꽃그림
	생애주기	나이에 이야기하기	인류, 시간, 기억, 양육, 노후	생애주기의 이해	나이, 생애에 대한 질문과 대답 생애주기표 작성
	언어	말의 의미와 시의 의미	언어, 시, 의미, 소통	말과 시의 이해와 활용	노천명과 김수영 일기
환경과 생활	사물	사물의 발견	의미, 활용, 변화	사물의 필요와 의미, 활용	사물의 발견과 변화 시키기
	자연	계절이 흐르다	절기, 순환	절기를 통한 때와 흙과 활동의 통합	건강한 흙과 화분 만들기
	주거	집에서 거주하다	공간, 거주, 집과 마을	'집'의 의미와 구성	메모지로 집짓기
	음식	음식의 조화로우름과 변화	생산, 변화, 에너지, 나눔	부분의 통합과 조화, 운영	레시피 작성과 발표
변화 수행	사랑	사랑을 이해하다	이성, 사랑, 독립	마리 루터의 사랑학 개론	사랑학 주제에 대한 자기 답변
	양육	아이와 함께 살다	성장, 발달, 독립, 자립	성장 발달론	아이에게 편지쓰기
	노동	변화를 만드는 행동	생활노동, 변화노동, 직업노동	일의 의미 찾기와 계획 세우기	자율학습
통합과 관계 맺기	마을	마을활동 지도 만들기	지도의 해석	나의 지역과 활동	나의 마을 지도 그리기
	이웃	친구와 함께 할 일들	상호 대하기와 함께 활동하기	상대 이해하기와 공동활동 구상하기	인터뷰
	뉴스	뉴스와 나	주제와 소재, 의미와 해석, 현실과 대안	뉴스 구조 읽기와 내 기사 쓰기	나 생활 기사 쓰기
	학습정리	나의 수업감상	성찰과 사유, 글쓰기	수업자료 정리 및 발표	후기 쓰기

최근 몇 년 동안 문화예술교육보다 더 고민했던 교육활동은 생활 속의 인문학이다. 나부터 나의 일상과 생애에 대한 질문과 해석의 작업이 필요했고, 이웃한 이들도 자신만의 개별성과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단독성을 찾아 인류의 보편과 만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이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에서 몇 가지 예술과 문화현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언어, 문학, 예술, 역사, 철학 등을 빌려 와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만만치 않은 활동이다. 매 수업 전에 학습과 교재를 새로 작성해야 하고, 수업진행에서 지식적인 면모와 생활적인 면모를 절묘하게 만나게 해야 하는 역량과 참가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의 해석과 표현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역시 일상이 아닌 2시간의 수업시간으로는 이뤄질 수 없는 일이지 않을까?

지난 해 활동지역을 옮겼는데, 올해는 지역의엄마'을 찾고 그동안 우리 단체의 엄마활동가들이 탐구하고 실천한 이야기를 모아 '엄마가 만드는 마을동화' 만들기로 했다. 생활과 교육, 경험과 창작, 제작과 배포의 전 과정을 드러내고 가는 활동을 엄마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공예술활동인지 문화예술교육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지금의 지원체계에서는 매우 모호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곳 또한 그 이름만으로 매우 선명한 우리 시민들의 주체적 활동이 될 것이다.

3. 들여다보기2

‘구현골, 글쓰는 마을의 탄생’ : 고길섭 기획

▶2013년 전북지역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앞서 나의 교육활동에 대한 언급은 이 두 번째 사례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위치를 설명하고 싶었을 것이다. 올해 전북 지역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의 추가 공모 심의를 맡으면서 발견한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 ‘자신의 삶의 처지와 입장’에서 발아되고 ‘자신이 속한 관계망’에서 펼쳐지며 지역과 마을을 ‘자기 삶의 환경’으로 인식하고 수강생들에게 그동안 억압되었던 ‘자기표현’과 문화예술교육에 잘 이뤄지지 않는 ‘교육과 일상을 결합’을 통해 동시대의 ‘지역마다의 특이점’을 존중하고 다음의 시간에 도래하여 인류 민중의 오랜 꿈인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각 ‘개별자’들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론적 배경과 자신의 경험과 처지를 융합하여 ‘자기 언어’로 기술하고 있었다.

이것은 여타의 대다수 프로그램들이 무언가 더 예술적이고, 무언가 더 문화적이어야 한다거나 최근의 화두인 ‘마을’을 중심으로 한 활동을 기획해야 한다는 억압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답안지를 써 놓고도 스스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한 한계와 반성을 숨기고 있는 경우나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문제에 대한 저항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원한계 금액을 기계적으로 칸에 채워온 기획서도 이렇게 많다니.....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이 차이란, 지난 1차 포럼의 김종길님의 발제문에서 지적한 바를 빌려 쓸 수 있겠다.

발췌)
문화예술교육의 내부 혁명을 위하여 - 1차 포럼 발제문 중에서
김종길 (경기도미술관 교육팀장, 미술평론가)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에서 ‘문화예술’은 교육의 부재를 확인하는 ‘반짝 이벤트’ 프로그램이 된 지 오래다. 교육철학이 피폐한 학교나 사회에서 문화예술은 깜짝 쇼를 펼치거나 미유발 서커스를 위해 초대되니까. 그나마 이벤트의 감동수치가 높은 프로그램은 주 단위 혹은 월단위로 기획되기도 하지만, ‘시범성’ 프로그램은 근력강화 주사로 핏대를 세운 차력사들처럼 한 순간에 ‘문화예술교육’의 황홀경을 펼쳐내야 한다. ‘특종, 놀라운 세상’이나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올법한 사건을 일상처럼 기획해야 하는 곳이 현재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이다.

학교에서 교양학습이나 특별학습도 아닌 지친 뇌 근육 활성화를 위한 찻나의 이벤트가 될 때 문화예술은 수치심도 없는 뻔뻔한 돈벌이가 된다. 사회에서 교육의 이름으로 불려가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노래하고 입방정을 놀릴 때 문화예술은 앵벌이가 된다. 문화예술은 새 천년의 시대령을 넘어와 그렇게 ‘분식 교육’의 천덕꾸러기가 되었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학교에서 추방당한 문화예술교육이 정부주도의 정책 속에서 정부에 의한 정부를 위한 정부의 시너로 전략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를 요약하여 보았다. 천천히 읽다보면 앞서 제시한 키워드들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밝힐 부분은 전북문화예술교육센터가 이와 같은 자기언어로 기획의도를 밝힐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특이점과 만남의 의미, 교육철학 등의 기술을 요구하는 지원양식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구현골, 글쓰는 마을의 탄생’ 기획 의도 요약

(※본 내용의 발췌는 저자에게 필자가 연구목적으로 활용할 것을 양해 구하고 활용한 것입니다.)

주강사는 속 편하게 마을과 섞이지 않고 개인적 삶에 충실하여 살아가면 그만일 수 있습니다만 이미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을에서 살기’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중략>

이는 마을 주민들이 예술적 기질이 높아서도 아니고 특정 예술장르에 심취할 수 있어서도 아니며 수준 높은 예술적 표현 결과물을 대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기대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다면 이들 주민들은 평생 문화예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말아야 할까요. 그간 문화예술적 삶을 잃어버렸다면 이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중략>

주관단체인 우리 구현골문화자치회는 마을단체로서 전문적 문화예술단체도 아닐뿐더러 주관단체이자 동시에 향유기관(대상기관)이라는 점에서 약점에 해당될 수 있지만 향유주체 스스로 기획하고 진행한다는 자발성의 원리에 충실한다는 장점을 보여줍니다.<중략>

부안면 상동리에 소재한 고창북중학교가 교사지원을 하기로 하여 지역과 무관해 보이는 공교육이 지역 사회와 연계해 마을의 문화교육적 효과를 높여주리라 봅니다.<중략>

문학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농촌마을에도 인문학적 개입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돈, 돈, 돈에 파묻히려는 세상에 작은 도서관은 들깨 치고 인문학적인 담벼락 벽화라도 하나 있음으로 인해 어떤 인문적 의미를 발견하도록 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중략>

글쓰기교육은 인문학적 시선의 가장 기초적인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현마을 글쓰기교육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문화적 감수성을 매개로 하는 인문적 자아의 발견, 마을 커뮤니티의 새로운 형성,



공감-공유-연대성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자발적 참여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자 합니다. 학습하는 주체를 교육대상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기획하고 진행하는 주체와 유기적 통합관계로 구성하고 주체화하는 발상입니다. 이것은 최종 결과물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과정 하나하나의 실천을 통한 참여자들의 변화과정 및 표현과정 자체를 교육목표로 설정하는 것과 관련됩니다.<중략>

글쓰기교육을 통해 사적인 감정구조를 공적인 감정구조로 소통하고 공유하며 마을사회의 연대성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구현마을은 마을에 대해 문헌으로 기록된 것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현마을 글쓰기교육을 통해 마을의 이야기가 글로 탄생합니다. 대단하지 않고 하찮아보일지라도 이것은 마을의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쓰는 마을이야기들을 교육과정에서 그때그때 발굴하여 성과로 모아가면서 추석 때 마을에 전시하여 귀향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을의 비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중략>

요컨대 교육과정을 교육시간에만 묶어 두는 게 아니라 주민의 삶 전체로 확장하여 하나의 에쓰노그래피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주강사가 주민으로서 주민생활에 참여하고 매개하고 관찰하면서 교육에 집중합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마음을 열지 않고 글쓰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또한 글쓰는 마을 교육의 주체도 될 수 없습니다.<중략>

우리는 구현마을의 글쓰기 교육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보편적 인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현마을’에서 살아왔던-살아갈 구체적으로 고유한 이름을 갖는 개별자들의 존재를 의미합니다.<중략>

교육 초기에는 기획자 및 강사의 시선이 중요하나 교육과정이 무르익어 갈수록 피교육자인 주민 자신들의 시선을 중시합니다. ‘시선의 이동’입니다.<중략>

삶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도록 합니다. 글 쓰는 마을 교육은 어떤 답을 주기보다 평생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교육을 경험하는 자신들의 삶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며 삶의 의미와 패러다임에 대해 성찰해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건은 삶에 있어서 문화적 의미의 동기부여입니다. <중략>

〈프로그램 진행상의 원칙 및 유의점〉

목요일 오전 09:00-12:00에 총 33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체 기획자-강사진이 교육방법 특히 구성주의 학습법에 대해 미리 학습하고 공유하며 '구현골 글쓰는 마을' 교육 특성에 맞게끔 설계한다. 특강 강사들에 대해서도 이 점을 미리 공유하도록 하여 특강이 교육취지와 따로 놀지 않도록 최대한 고려한다.

교육은 일방적 주입이 아니라 학습대상인 주민들과 상호작용적으로, 학습참여자들의 자기학습 주도권을 최대한 부여하면서 진행하도록 배치하나, 그런 방식으로 훈련되지 않은 학습참여자들의 행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되 학습대상의 반응에 주목하고 또한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거쳐 교육자가 인내를 가지고 진행하도록 한다. 매 계기마다 학습방법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의 훈련과정 자체가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착안한다. 따라서 교육은 미리 설계된 프로그램대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움직이며 조정되는 변수가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교육이 목표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때때로 의외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의외의 상황은 미리 예상치 못했으나 문화교육의 창발적 과정으로 의미를 두며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한다. 아래 프로그램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할 것이다.

아래 프로그램들은 교육의 목표에 맞게끔 설계한 교육과정들이되 100% 완수하겠다는 불가능한 생각보다 학습대상의 특성상 느리더라도 그 참여과정을 중시한다는 전제하에 수행할 것이며, 학습대상의 욕구와 표정의 변화, 매 프로그램마다 학습 성공의 과정과 실패의 과정 모두를 섬세하게 평가하여 이후 교육과정으로 피드백 시킨다. 따라서 아래 프로그램들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한다.

교육 시작하기 전에 학습 참여자들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거나 이야기하기 또는 토론하는 방법을 함께 세우고 공유하도록 한다. 즉 마을 사람들의 관행적인 이야기 방식을 존중하되 비문화적인 것들은 문화교육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말하는 방법에 대해 변화를 주고 토론하고 공유하도록 한다.

교육은 상호참여적인 학습의 원칙에 따르므로 진행과정에서 학습대상자들이 프로그램을 새롭게 제안하거나,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둘이 또는 몇몇이 짝이나 팀을 이루어 상호 협력적이고 자율적으로 분반활동을 하도록 배치하는 한편, 학습대상자인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시도하는 등 최대한 학습대상자들이 교육의 참여주체가 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상호참여적인 학습의 원칙이라 할지라도 자유분방하게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교육적 효과로 수렴될 수 있도록 일정한 간섭과 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문맹자가 다수 있음을 고려하여 한글학습반은 별도로 꾸려 진행한다. 주민들은 글쓰기교육에 모두가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반영했다.

이 글들을 요약하여 놓고 보면서 저는 어떤 사람의 위치와 입장, 그의 생각과 활동의 계획을 담은 지인으로부터의 편지를 받은 느낌이 듭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감자를 먹는 사람들' 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자신의 단독성과 진정성은 스스로의 삶을 자유롭게 하면서 동시에 타인들의 삶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시인 김수영의 표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위의 글에는 제 의견을 섞어 두지 않기로 합니다.

다음은 이 공모사업의 1차 심의평을 통해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문화예술교육 공모사업의 한계와 대안적 활동의 필요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에 이른 문화예술교육은 몇 가지 내면화된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활동은 참가 대상(사람, 환경, 소통)의 특성을 해석하고 예술과 문화 장르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교육환경으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탐구를 담아 좀 더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술표현의 훈련을 소홀하게 생각하기보다 우리의 시대와 사회가 교육자와 시민들이 생활인임을 존중할 필요와 상호 문화적 성장을 도와주길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접수된 프로그램들 중에 이와 같은 고민들을 담아 삶의 현장에서의 지역활동과 교육활동을 담아낸 경우들을 우선 선정하였습니다. 집창촌 인근 주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사회적응이 어려운 청소년들의 음식탐구, 마을문화에 대한 인문학적 탐구 등의 프로그램들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참여대상 모두를 주인공으로 존중하려는 태도와 참가자들이 화자(스토리텔러)가 되어 표현되는 진정한 스토리텔링의 의미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지역문화와 사회적 배려 대상을 선정하고 교육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더라도 단체와 강사가 이미 숙련된 자기 예술표현을 참가자들에게 전수하는 것을 중심으로 프로

그램이 구성되어 있거나, 프로그램의 배경과 주제는 참가자들의 입장에서의 성장과 자유를 표현하였으나, 교육내용은 일방적 강의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탐구와 프로그램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들을 선정하였고, 프로그램의 문화환경과 대상자, 교육과정의 사전탐구가 전제되어야 할 프로그램들은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선정 프로그램의 지역문화에 대한 애정과 지역의 여성, 노인, 다문화가정 등의 대상에 대한 관심에 경의를 보내며 다음의 기회에 지역의 일상과 현장의 문화의 해석을 담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우리는 조금 더 여유롭게 사유하고 조금 더 선명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며 타인들과 나누어가는 삶의 일상을 꿈꾸어 갑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아마도 이런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 조력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뤄지는 예술은 곧 시대와 사회, 환경과 관계를 탐구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겠지요.

2013년 전북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추가공모 1차 심의평 중에서

2013년 2월 7일 심사위원장 드라마고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탐구하고 싶다.

4. 들어가기(결론)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은 크게 대상으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노인, 장애인과 다문화-미혼모-탈북자-제소자 등의 소수문화자의 영역과 마을단위의 지역민, 여성, 복지-문화활동가 등에 이르는 확장된 대상을 포함하고 교육영역에서는 전형적인 예술장르에서부터 지역의 역사와 전통문화에 대한 탐구, 마을환경의 개선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이르는 주민활동프로그램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서예와 원예, 신화와 동화에 이르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대상과 영역의 다양성은 그 출발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러 영역들의 통합, 새로운 교육활동의 창조 등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합의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전형적인 훈련식 예술교육으로 일관되어온 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가능케 하였고 예술의 기반인 문화와 예술계를 넘어선 지역사회를 인식하게 하였으며, 우리 사회가 생산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존재적 인정과 일말의 보상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과 성과에 너무 도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가 했으나, 지금의 대다수의 프로그램들은 정책 초기에 발굴된 프로그램들의 자유로움과 자기 현장성을 상실하고, 창조적 진화보다는 무성교배(박찬국 발제) 저임금의 메뚜기형 시간제 노동자들을 양산하여 스스로의 교육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해야하는 현장과 기관들을 방문하여 그들의 자발성과 주체성을 상실시키면서 개량적 성과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객관적 성과'는 문화예술교육사를 제도화하고 이 자격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현재적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중대한 오류가 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화예술교육자들이 교육학과 프로그램기획, 관리와 운영의 능력이 부족한 이들이니 그것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편협한 것입니다. (자격과정의 교육구성안이 그렇습니다.)

본래 예술은 '자유'를 추구하고, 문화는 가르쳐 지는 것이기보다 환경 속에서 각 개인들의 교류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며, 우리 시대의 교육은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하고 동시대과 개인들의 삶의 문제들을 자각하고 대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야 한다는 것이 화두라고 보면 문화예술교육자들이 갖춰야 할 소양은 '인간에 대한 지속적 탐구'의 철학과 '자신의 삶에 대한 실현'하는 예술과 좀 더 '자유롭고 민주화된 사회'는 무엇인지, 타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주제를 설정하고 문화예술교육을 넘어 사회전반이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사회의 각 영역의 본래의 역할을 재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전 그 교육에 참여하여 본 취지를 실현해야 하는 숙제를 안았습니다.)

그 발견의 몇 가지를 담아 발제문을 구성하여 보았습니다. 억압받은 이들은 자신을 억압하는 것에 대한 저항과 함께 스스로의 삶을 실현하는 활동을 '단독'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현장에 놓인 '나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온전한 삶의 추구만이 타인의 들의 삶의 온전한 삶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세계에는 주관이 없는 객관적인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과 제도, 각 기관과 지원프

로그램들도 모두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인데, 각 개인들이 자신의 온전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이들이 강제적으로 객관화 시킨 정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다시 각 개인에게 묻고 있는 '자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생각을 문장으로 정리한 바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 제안은 지원제도와 지원센터에 요청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문화예술교육자들과 실무자께서 개인의 입장에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의도와 시도가 지원사업의 조건에서 지지되고 허용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포럼 안에서 이 문장들에 대한 필요와 불가능하게 하는 한계들을 발표되고 논의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앞선 내용들에서 이미 밝힌 바도 있고, 생활 속에서 살펴봐 주실 분들이 있을 것이고, 저도 이 계기로 이 문장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게 되겠지요.

이와 같은 자리에 초청하여 주시고, 저의 의견을 들어주시고, 고견과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발제를 위해 15일 새벽에 작성을 끝내다.

▶ 통합문화예술교육의 구성방안

- 하나에 대한 이야기에서 삶에 대한 이야기로
- 특별함보다는 인간의 자유와 공존을 위한 예술
- 타인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로
- 누구나의 삶이 가능하고 민주화된 세상을 꿈꾸며
- 경험과 철학하기, 생활실천에 이르기까지
- 자신의 생활과 언어로 말하는 강사
- 자기 삶의 과정에서의 단독성과 타인들과의 만남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

▶ 새로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형태들

- 자기 주도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이가 구상하는 자기 교육 기획
 - 청소년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 강사의 자신의 삶과 생활을 담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개인 튜토리얼 프로그램 / 1~다수의 가족단위 프로그램
 - 교육자와 학습자 1대1 교습방식
 - 지역민들이 이웃활동으로 공동운영 참여하는 프로그램
- 지역운동의 네트워크와 결합된 활동
 - 지역시민, 문화, 복지운동 네트워크의 (청년)활동가 교육 및 지역공동사업

- 지역사회 문제해결과정에 기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지역공공예술과 연계된 지원
 - 공공예술활동과 병행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활동이 이후의 지역실천활동 방안 연계
- 정주형,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활동의 지원
 - 지역 정주형, 통합형 문화예술교육활동에 대한 포괄적 지원
 - '마을학교' 운동의 기본전제이자 문화예술교육과의 결합조건
- 노동교육, 진로교육, 직업교육과 연계된 활동
 - 노동의 개념과 역사, 삶에서의 노동의 의미를 담아 문화예술적 표현을 담은 프로그램
 - 개인의 성격과 인간의 생애, 사회의 구성 등을 담은 진로교육의 개발
 - 장인정신을 통한 삶과 직업이 지닌 예술성과 문화적 의미를 담은 프로그램
- 사회적 배려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와 이를 지지, 관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활문화 프로그램
 -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스스로의 삶을 실현하는 활동

지역문화예술교육의 미래를 위한 연속포럼 - 3차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2013년 3월 20일(수) 오후2시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아카이브 · 공동주최 : 경기/서울/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연대 · 주관 : 인·인·인(인천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 정책 과제 및 개선방안

발
회 : 이원재 (문화연대 사무처장)
기조강연 : 강원재 (OO대학교 연구스 1소장)
제 :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본부장)
드라마고 (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지정토론 : 고영직 (문학평론가)
우상훈 (인천문화재단 문화교육팀장)

이원재 (사회자) ▶ 오늘 토론회는 이 포럼의 마지막 토론회로 세 번째 토론회입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이나 지역문화예술교육 현장에 관련된 연속 토론회로 경기, 인천, 서울의 문화예술교육진흥센터와 문화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 포럼이 마무리되면 논의된 것들을 평가하면서 이후에 현장 활동가나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강원재 선생님 기조강연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한 20분 정도 기조강연을 듣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재 (기조강연) ▽ 00은 대학 1소장으로 있는 강원재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시론’이라는 발제문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어떤 영역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에 중심을 맞추려 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와 예술과 교육, 그리고 여기에 지역까지 붙어서 맥락이 더 복잡해지는데 문화와 예술과 교육이라는 것들도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이야기 할 때 하나의 문화예술교육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만큼 문화예술교육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고 절대적인 방법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양한 지형 안에서 각자가 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적절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새롭게 구성하고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장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지향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정책입니다. 특히 지역이라고 명명되는 공간적 범주를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만한 과정을 만드는 것이 지역문화예술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문화예술교육이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장이 압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문화예술적으로 바꿔길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전반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직접 실천하고 있는 공간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할지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00은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0은 대학은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성들을 발견하고, 주민들이 교수가 되어 그 긍정성들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과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층층이 쌓이면서 넓히면서 지역을 마을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지역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의, 축제, 장터 등을 만들면서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기획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강화도 온수리, 부평 부천, 서울의 마포, 구로, 성북 이렇게 총 6개 지역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역의 특성들이 다 달라서 한 가지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 그 현장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발견하고 주민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긍정성을 강조하면서 삶을 조금씩 바꿔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변해가고 싶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고 출발점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자센터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곳에서 청소년과 청년들을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각자 자신이 발 딛고 있는 부분들을 함께 맞추다보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훈수를 두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놀이 등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문화예술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다른 방식의 소통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서로 다른 그라운드에서 발을 디디고 서로 이야기하는 방식보다 같은 그라운드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같은 그라운드에서 선다는 게 어떤 걸까하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문화예술교육이 어느 곳에 발을 디디고 어떤 것을 실천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재 ▶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토론회의 같은 그라운드에 있다고 믿고 많은 고민들과 상상력들을 나누면서 논쟁적인 토론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 협동조합 퍼포먼스 반지하의 드라마고 대표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고 (발제) ▶ 발제를 하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교육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검색해봤는데 한국의 교육학은 없답니다. 우리가 배우는 모든 교육학들은 다 수입된 이론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문화예술교육 쪽에서 일하고 계실 텐데, 이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사유하고 자기 자신을 밝히는 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강원재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일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을 시작하기 전의 기대의 단계, 두 번째는 다양한 관계를 맺는 과정 수행의 단계, 마지막은 성장 과정으로서의 결과지음 단계입니다. 인간은 어떤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언어와 행동이 변하고 그 공간이 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단계로 문화예술교육을 봤을 때, 계획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문화예술교육 지원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해보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교육할 때 시청각 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교육학에서는 시청각 자료보다 실물이 더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실물과 현장이죠. 남의 교육 자료를 가져와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재를 보여주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며 함께 문제에 참여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가져야 합니다. 전문가가 만든 지식만을 전달할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이란 만드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교육도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삶의 과정으로서 교육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한국은 20세기 들어와서 식민지를 겪고 미군정을 지나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수입된 이론과 정신적 기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삶에서 뭔가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부터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만들 때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몇 차에서는 일본 거 갖다 쓰고, 몇 차에서는 미국 거 갖다 쓰고 이러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정책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면 본인의 주변 환경을 사유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문화, 자신의 예술, 자신의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삶으로서 이런 활동을 해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보면,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이혼의 문제, 빈곤의 문제 등의 사회문제, 그리고 아이들의 학교 부적응에 대한 문제, 사교육의 문제 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역사



회에서 살아가는 취약계층들을 보면 부모님이 아이들 돌보기 어렵고, 주변의 이웃들도 돌봐줄 수 없고, 학교 선생은 방과 후엔 애들을 신경쓰지 않죠. 이런 맥락에서 지역아동센터는 우리나라 60년대 탁아운동부터 시작했던 공부방 운동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복지기관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지역에서 아이들한테 밥도 주고, 교육도 하고, 문화체험도 시키고, 예술창작 활동도 같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건 주변적인 것이고, 핵심은 아이들과 같이 있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원활동을 가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 현재 지역아동 센터에 문화예술교육 강사들과 프로그램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은 옛날에 공부방 활동을 했던 교사들과 다릅니다.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정부지원을 한 달에 2~3백 받고, 구청에서 급식 지원받고 이러다보니까 실적내고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또는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강사분들이 찾아와서 강의해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분들은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아이들을 교육하고 헤어지십니다. 이 상황이 별 문제가 없고 행복한 장면일까요? 아이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학습의 문제를 해결하고, 급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을 같이 나눔으로써 교감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어른들과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본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해보는 경험들이 나중에 자기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지원센터 교사하고 그런 생활적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정된 시간만 만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안녕입니다.



사건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해보고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 생기는 문제가 뭔지 다시 겪어 보고 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강사가 아니라 지역아동센터 교사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봐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현재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방식은 결과적으로 문화 복지적 형태로서의 성과들이 수도 없이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지역아동센터 내지는 복지 기관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역효과를 넘어서 악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말하려 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정의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사는 게 우선입니다. 현재 상황은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할 때, 사는 것 보다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게 더 우선되는 상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은데, 자꾸 문화예술교육이 강조되다보면 문화예술교육 자체를 탐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원이 자꾸 과다 수혈돼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심지어 수익사업하려고 지역아동센터를 여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부터 오랫동안 활동하던 선배들로부터 배운 지역아동센터 교사분들은 공부방 운동부터 지역아동센터까지의 교육철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기존 학교 교육에서의 지식전달 체계, 그리고 지식과 생활이 분리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야기하는 '나들의 공동체' 를 지키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이 발생할 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동료끼리의 지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신의 활동이나 기관의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동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료들끼리 모여서 활동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



제 등을 공감하게 되면 이런 지지를 기반으로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와 입장에서 발화되어 자신이 속한 관계망에서 펼쳐지며 지역과 마을을 자기 삶의 환경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서 교육과 일상의 결합이 잘 이뤄지지 않았는데, 이것을 결합시키고 지역문화의 특이점을 존중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교육은 계속 복제 되어왔습니다. 무한 복제된 프로그램들을 놓고, 심의를 해야 되고 점수를 매기고 선정을 해야 되는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점점 지워지고 극단적인 형식화와 부도덕한 복제가 자행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에서 일상을 놓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 드려야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들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재소자들, 다문화가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현재 사회적 기업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새롭게 생성된 영역입니다. 새로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해왔고, 이 사업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재해석했습니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닌 게 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에 그것을 같이 인식하고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점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생활과 일상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을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본래의 그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본인의 삶의 지향을 지지해준다든지, 이런 방식의 기여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형식화와 프로그램의 무한 복제 등등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을 완화하기 위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통합문화예술교육으로서의 구성방안이 있습니다. 완전히 통합적인 구조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와 공존을 위한 활동을 하자는 겁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생활과 만나고 통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으로서의 교육과정은 철학하는 것, 경험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실천에 이르는 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활동의 형태에 대한 제안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주도형 학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려는 강사는 자신의 삶과 생활이 다 문화예술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장르, 음악, 미술, 이런 식의 장르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자기 생활 영역에서 발생한 관계에 대한 주제를 문화예술을 통해 풀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튜터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집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식 방식으로 교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일대일 교습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봐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문화 네트워크와 결합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교육과 공공예술 활동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의 측면으로 보면 한 가지 줄기에서 나온 두 가지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활동입니다. 현재는 개별 장르화된 전공 분야의 전문성 교육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은 생활, 이성, 영혼 등이 통합적으로 사유하고 인간에 대한 탐구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아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듯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는 통합성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응하기에는 여전히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 열정적인 발제였습니다. 다음 발제자였던 이규석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참석 못 하셔서 제가 대리 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분이 쓴 글이어서 길게 이야기 하기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먼저 교육자치 시대와 더불어 문화 교육, 문화복지자치 시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교육문화 복지 영역을 지자체의 고유사업으로 재정립 하는 것들이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전체적인 불균형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절되고 휘발되는 일회적인 그런 단위사업 중심의 지원제도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크게 네 가지의 범주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하나는 위상의 재정립입니다. 자율형 문화예술교육 추진 주체로서, 광역을 포함한 지역 센터들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정책적 수단으로 가장 근거가 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과제를 통섭적인 거버넌스형 지역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로 구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관이나 좀 더 중간조직들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실제로 현장과 새로운 혁신 거버넌스가 작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자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보편성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충분성 확보입니다. 앞서 패러다임 전환에서 불균형성의 문제 같은 것들을 제안했는데요, 이규석 본부장이, 여기서는 그래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잘 아시는 것처럼 불균

형성도 있지만, 초기 문화예술교육을 제기할 때, 공교육이 학교 교육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실질적인 개혁, 심지어는 나아가서 입시제도까지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사정 위원회 모델처럼 실질적인 합의구조들을 가져보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많이 이야기된 지원방식의 개선을 지적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뿐만은 아니겠지만 공모지원 중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규석 본부장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잘 전달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이 발제문에 요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쉬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영직 선생님 토론을 듣고 이어서 우상훈 팀장님 들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직 (지정토론) ▶ 이번 문화예술교육 포럼에 참여하면서 문화예술교육도 어쩌면 근대교육의 역설의 자장권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사실과 계산이라는 공리주의적인 가치들을 옹호하고 있는 정책적인 담론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제기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강원재 선생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나의 문화 정책이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을 분절화 시키는 의미에서의 지역을 의미를 생성시키는 생성의 장소로서의 마을로 만들자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를 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힐링이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이런 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덮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삶의 구조에 대해 성찰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개인적인 행위로만 보는 것은 문제 제기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문화예술교육이 힐링이 주는 역할로서 우리 사회에 공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힐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교육철학이나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좀 더 질적인 도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여러 가지 정체성 문제가 있을 텐데 강원재 선생님이 강조하고자 했던 건 같은 그라운드에서 뛰고 있다는 동료 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강원재 선생님의 청년들하고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드라마고 선생님은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실물과 현장에 대한 강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사유와 모든 운동의 방식이 안전한 장소에서 안전한 소리로 안전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자기가 체험한 어떤 것들을 단독성을 갖고 해야 한다고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강원재 선생님이 말한 나의 문화정책이라는 말과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방법론도 제안해주셨고요.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문화예술교육이 권장되고 유포되는 방식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아르떼 예산이 769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문화융성을 강조하는 이 정부에서 문화예산 2%로 올린다고 한다면 적어도 1년에 천억에서 2천억 정도를 매해 꾸준

히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불과 1,2년 지나게 되면 아르떼 예산이 천억을 넘어 갈 수도 있는 상황에 분명히 직면하게 될 거고, 그렇다면 가장 쉬운 것은 과시성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신적 효과라는 게 있겠죠.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혼재돼서 정책 담론과 정책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선생님 나름대로의 교육 경험이나 교육에 관한 고민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시긴 합니다만 이규석 선생님 발제 재미있게 읽었어요. 정책에 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좋은 정책이 좋은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제의 위기가 지방재정의 위기라고 보는데 특히 인천 같은 경우 심각하잖아요. 저도 인천 문화재단과 관련된 어떤 일을 올해까지는 합니다만 상당히 돈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방 자치의 위기가 문화자치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의 위기가 근본적으로 재정 위기에 있다는 것도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교육 철학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를 고민하든 중앙 정부를 고민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재정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규석 선생님이 제안하신 교육세를 교육문화세로 바꾸자는 제안이 엄청난 저항감이 있겠죠.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 네 질문들은 바로 즉답 안하고, 한 번 쪽 토론한 다음에 같이 모아서 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훈 팀장님 토론 들겠습니다.

우상훈 (지정토론) ▶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다른 분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참석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앉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그냥 오늘 발제나 기초강연 중에서 저한테 다가왔던 부분들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석 서울문화재단본부장님의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 과제 및 개선방안 발제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어떤 새로운 대안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인천문화재단에서도 대안찾기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역 차원에서 교육지원 센터 설립으로 가자는 그런 제안들도 사실 있었고요. 지금까지 지역문화예술지원 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결국 지역 중심의 설립 쪽으로 많이 무게가 가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들 중 여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꼭 검토해 봐야할 지점들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설립의 주체가 지역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광역단위 지역재단들이 거의 지금 설립이 되어가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까지 17개 중에서 12개 정도가 아마 지역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나 개선방안들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재단에서 어떻게든 역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지역편차를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역별로 똑같이 표준화해서 정책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문화부와 진흥원의 입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상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냥 다 한꺼번에 짜서 내린다는 방식으로 이야길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정책과제나 개선방안도 지역적 편차에 따라서는 실행이 가능한 지역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지역은 이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한

▶ 생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활동

조금 정교하게 접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사실 정책이나 제도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지향해야 될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재 ▶ 드라마고가 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들이 직접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예술교육의 두 가지 방향의 고민과 비슷합니다. 문화예술교육이 끊임없이 학습자와 소통하면서 그 안에서 관계성을 만들어내고 그 관계성 안에서 건강한 주체로서 성숙되어 나가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흐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적 감성의 생채기 같은 것을 확 긁어내버리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순간의 생채기 때문에 내가 계속 문화예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의 문화예술이란 건 나와 통하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일방적으로 나한테 확 와가지고 나를 할켜 버렸는데 그 느낌들 때문에 내 삶이라는 것이 그리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계속 사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안에서 교사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또 이러한 문화예술적 생채기들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원재 ▶ 먼저 드라마고 대표부터 지금까지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강원재 선생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드라마고 ▶ 제 방식은 교육활동과 예술활동과 나의 학습과 작업, 주변에 사는 사람과의 관계, 특히 나의 생활을 연동시켜서 리사이클링 시키는 방식입니다. 예전에 저도 교사였는데 퇴직하고 나왔습니다. 거기는 회전식 전략이 안 먹혀요. 내 생활하고 학습과 관계 맺기가 잘 안 됩니다. 교육 활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저의 일상, 활동 방식을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강의를 하거나 이런 교육활동으로 구성합니다.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침 새벽에서부터 밤늦게 까지 연탄도 갈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애도 봐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쁩니다. 이것을 연동하면 새로움이라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원래 새로운 건 아닌데 연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생활과 이론과 실천 작업, 도구들, 신체 이런 것 들을 연동함으로 해서 전인교육과 통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원래 갖고 있었던 과거의 철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의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 이것을 예술작업에도 적용하고 교육에도 적용하고, 연구작업에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힘들지만 운동의 동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가동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채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했던 시대의 상처하고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을 접할 수 없었던 시대,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시대, 우리의 교육학을 느껴볼 수 없던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채기를 극복하기위한 전환의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교사도 문화예술교육 카테고리에서 자기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

하고,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들도 생활적 통합과 통합문화예술교육에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다 생채기가 있어서 우리의 활동이 우리의 생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활동이라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강원재 ▶ 아까 고영직 선생이 한 이야기 중에 구조적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 푸는 것의 한계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자유인이 생기면 우리 사회 전체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과 특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역시 우리의 숙제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책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각자가 각자의 다양한 정책대로 우리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그 현장에서의 몸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으니 그만 생각하자고 하는 데에서 정책의 영점이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이 나의 정책이라는 거죠. 내가 돌볼 수 있는 만큼 이게 나의 정책이다. 이걸 그냥 일반화 해서 난 왜 이렇게 못하냐고 이야기하는 것도 위험하다, 그것은 나의 특수성 안에서 내가 다룰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회적 존재로서 나는 이것을 공유하는 의무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각자의 정책들을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하고 서로 나누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방 자치의 위기가 지방 재정의 위기다,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문화예술교육 센터들 힘든 게 재정 문제 때문이죠. 전적으로 재정을 의존하는 구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자체가 지역 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에 확실하게 돈 싸주고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이제 거기에 대해가지고 논의할 것들 별로 없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영역은 어쩌다 국가 재정에 의존을 해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세금을 국가에 낼 것들을 이쪽으로 바로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꼭 국가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 따른 예산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안에서 시민들이 직접 그 재정들을 마련하려고 돈을 내놓도록 하는 구조를 짜 나가는 데에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동시적으로 안 하면 허무해져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전개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재 ▶ 저는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건 반이론주의나 반정책주의가 너무 팽배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한국에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행 담론과 유행 사업들이 있는 거지 어디에도 정책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프로젝트 단가 책정하는 정책 같은 거 토론해본 적도 없어요. 문화복지도 개념도 마련해 본 적이 없는 정책입니다. 문화복지라는 게 복지를 문화적으로 하는 건지, 복지에 문화적 가치를 넣는 건지, 문화복지라는 게 별도로 있는 건지 아무런 토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달체계나 과정, 관계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설계가 없습니다. 공급형

정책으로 그냥 만들기만 한 거죠. 전 이것을 공급형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삶을 공급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공급 안 받으면 못살게 하는 거죠. 공급을 계속 해주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 머리로만 생각하고 자기 실천 하지 않는 게 공급형 사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문화정책에 관해서는 어쨌든 중앙 집권적 방식보다는 지역적 결정권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트랙으로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표준화의 부분이 있겠지만, 전혀 다른 트랙으로 자율성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화를 최소화시킬수록 좋겠죠. 기본적으로 법은 최소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부분도 잠깐 말씀 드리면 문화 재정 문제도 정책적으로 토론된 적이 없어요.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검토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저는 많은 부분의 기관들이 돈이 없다고 말하는데, 돈 채워주면 일 잘할 수 있는 건가의 문제도 다시 토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재단에 아무리 많은 돈을 채워줘도 현장의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적정선은 있겠지만 다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자원 사용의 거버넌스나 원리들은 우리가 얼마나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돈을 계속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자원이라는 것의 접근방법의 발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유적 차원에서 어떻게 중간조직들 운영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도 오늘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많은 부분이 중앙 권력과 지역 권력들의 쟁점들에 걸쳐 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규석 본부장이 없어서 사회자인 제가 말이 길어졌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부분들을 세 광역센터랑 문화연대랑 같이 고민을 해보고, 아르떼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포함해서 좀 더 많은 의견의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발행인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디자인 (주) 더페이퍼

공동주최□주관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인천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문화연대